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至是是

조 선 로 동 당 중 앙 위 원 회 기 관 지

제192호 【루계 제24605호】 주제103(2014) 년 7월 11일(금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양국제 비행장 항공역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 서동지, 국방위원회 설계국 장인 륙군중장 마원춘동지 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강기섭동지,림 광웅동지를 비롯한 민용 항공총국의 일군들이 맞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12년 7월 새로 건설한 평양국제비행장 1항공역사 를 현지지도하시면서 2항

을 주시였다.

있다.

조감도, 전개도, 평면도앞에서 해설을 였다.

공역사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훝 들으신 다음 2항공역사의 외부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국제 항공역사를 건설하면서 세계적인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국제 륭히 건설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 내부를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비행장 항공역은 평양의 관문,우리 추세와 다른 나라의 좋은것들을 비행장 2항공역사건설을 제기일에 료해하시였다.

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군인건설 자들이 당의 의도대로 2항공역사 내용에 있어서 사회주의문명국의 체 하시였다.

나라의 얼굴이나 같다고 하시면서 받아들이는것과 함께 민족성이 끝내기 위해서는 군인건설자들의 당의 사상판철전,당정책옹위전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인건설 2항공역사를 건축형식에 있어서나 살아나게 마감하여야 한다고 지시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과 함께

> 등을 려객들의 편의를 최상의 수준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 🥌 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구, 정서와 미감에 맞게 세계적인 수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준에서 꾸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는 2항공역사의 모든 시설들을 현대적인것으 로 갖추고 봉사시설들 특색있게 건설하며 봉사활동을 잘하기 위 한 준비사업을 지금부터 짜고들어야 한다고 강조 하시면서 봉사활동을 개 선하기 위한 기구적인 대책과 구체적인 과업 과 방도들을 밝혀주시 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주 변에 호텔과 뻐스정류소를 비롯한 여러 봉사시설들도 더 건설하며 항공역이 자리잡고있는 순안지구의 환경을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내각과 성,중앙기관들에서 건설을

서 군인건설자들이 계획된 공사를 질 그러자면 시공에서 기술규정과 공 적으로 잘하여 평양국제비행장 항공 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며 모든 요 역을 선군시대의 기념비적건축물로 소요소를 우리 인민들의 지향과 요 완전무결하게 건설하리라는 기대와

본사정치보도반











# 대양은 마음속에 찬연하고 우정은 천하를 밝힌다

### 김일성주석님 **从** 升 즈음하여

말씀하시였다.

기념비를 세워주겠다고 하시며 기념비를

세울바치고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에

행사도 하<del>는</del>것이 좋을것 같다고 사려깊게

한 기념비가 만들어져 고위급의 조선대표

단과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호송하에 평양

에서 압록강대교까지 와닿았다. 중국정부를

대표하여 일찍부터 교두에 나와 기다리고

있던 무송현과 림강시의 일군들과 우리

장울화렬사유가족들이 김일성주석님께서

보내주신 기념비를 맞이하였고 중국의

자동차대렬이 정중히 인계받아 경찰차를

자동차행렬이 길에 나서자 세월이 흘러

도 변함없는 김일성주석님의 우의심에

감심한듯 방금전까지 따뜻한 가을해빛을

비쳐주던 하늘이 희고 큰 눈송이들을 뿌리

기 시작하였다. 송이송이 산골길에 내려앉

는 정갈한 눈송이들, 마치도 중국의 옛 판

습대로 렬사의 령혼을 위해 하늘이 종이돈

을 뿌리는듯 하였다. 류례없는 일이여서

드디여 중조량국의 큰 관심속에 마련된

성대한 건립행사가 시작되였을 때

김일성주석님의 존함으로 된 기념비의

글발이 찬연히 빛을 뿌리며 참가자들의

《장울화렬사의 혁명업적은 조중인민

의 친선의 빛나는 상징이다. 렬사의

숭고한 혁명정신과 혁명업적은 인민들

일

1992년 10월 27일》

전우가 희생된지 반세기도 넘었으나

유사이래 동서고금 그 어디에나 우정과

의리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다고 하지만

한 나라의 국가수반이 외국의 한 평범한

전우를 위하여 반세기가 지난 후에도 잊지

진정 숭고한 우의로 세계를 뒤흔든

않고 기념비를 세워준 그런 레가 있었던가.

김일성주석님은 한 나라의 수령, 국제사회주

의운동의 저명한 령도자이시기 전에 가장

위대한 인간, 고결한 의리의 최고체현자이시

덕행의 기념비는 피라미드보다 영원하다

무송의 장울화렬사기념비는 렬사의 혁명

업적을 후세에 길이 전하는 기념비인 동시

에 먼저 간 전우들을 영원히 잊지 않고 그

들에 대한 숭고한 의리를 지켜가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하늘과 같은 덕행을 후손

성

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것이다.

앞세우고 무송현성으로 향하였다.

우리모두의 감동은 더욱 컸다.

마음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더더욱 깊어지는 우정이였다.

였다.

는 말이 있다.

그리하여 주석님의 숭고한 뜻대로 훌륭

어느덧 스무해가 흘렀다. 인류의 대성인이신 김일성주석님을 회고

하여 붓을 든 내 나이 돌아보니 어언 여든 한번째 년륜이 감겨있다.

세월의 류수는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그리움을 더더욱 실어오고있다. 이미 몇건 의 글을 세상에 냈건만 장울화렬사의 아들 로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큰아버님으로 모신 나로서는 아직도 력사앞에 할바를 다 못하였다는 생각에 또다시 붓을 들게 되였다.

이 하늘아래 살아숨쉬는 한 나만이

이다.

시대는 변천하고 시속은 변하여도 국경 과 시공간을 초월하여 영원을 이룩한 김일성주석님의 고귀한 우애심은 래일에도 변함없이 천하를 밝힐것이라는것을 믿어마 지 않으며 나는 진정과 진실만을 담아

# 시원을 쳤지에

나는 김일성주석님이 그리워질 때면 무송현성의 밤거리들을 거닐군 한다.

현세기에 무송도 몰라보게 변하였다. 그러나 현대적인 면모속에서 력사는 의연히 숨쉬고있다.

중국에는 《동을 거울로 삼으면 옷차림을 바로잡을수 있고 력사를 거울로 삼으면 흥망성쇠를 알수 있다. 》는 격언이 있다. 력사라는 거울은 지난날을 통하여 오늘

과 래일을 비쳐주는 법이다. 백두산기슭에 위치한 무송현에는 가는

곳마다에 김형직선생님과 강반석녀사, 김형권동지, 김철주동지의 체취가 슴배여있고 김일성주석님의 유년시절과 항일혁명시기 의 뜻깊은 사적이 있다.

주석님께서는 무송을 고향이나 다름없이 여기시였다. 하기에 현성의 소남문안에 있 던 옛집과 김형직선생님께서 세우신 백산 학교, 장울화렬사와 한책상에 앉아 2년간 공부한 무송제1우급소학교, 신비로운 선인 동의 동굴,대영온천과 마안산밀영 등을 감 회깊게 추억하시던 김일성주석님이시였다.

현성의 서쪽으로는 송화강이 굽이치고있 다. 주석님께서는 나의 아버지 장울화와 함께 자주 이 강에서 헤염을 하시였다. 그이께서 길림육문중학교로 공부하러 뗘나 실 때 아버지가 이 강변에서 눈물로 바래워 드렸다.

오늘은 물결우에 대교가 건듯 걸렸지만 지금도 송화강은 나루배를 타고 강을 건느 시던 김일성주석님의 모습을 정히 비껴담 고있는듯싶다.

백두산천지는 력사의 세 장강을 뿜어내 는 발원지이다. 압록강, 두만강과 함께 송 화강의 용용한 흐름도 백두산천지에 그 시 원을 두었다.

오늘도 광활한 대지를 적셔주며 사품쳐 흐르는 송화강의 물갈기마다에는 백두광야 를 주름잡아 남전북정하시던 전설적영웅

김일성장군의 자욱자욱이 비껴있다. 내가 왜 송화강의 흐름을 보며 그 시원을

생각하게 되는것인가. 만경대일가분들과 우리 장씨가문사이의 우정은 나의 할아버지인 장만정으로부터 6대에 걸쳐 송화강의 흐름처럼 줄기 차게 이어져 오늘은 조선과 중국인민들은 물론이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있다. 우정이 우정을 낳고 그 우정이 다시 더 큰 우정으로 끝없이 승화되는 과정에 세상 에 류례없는 감동적인 인간관계의 력사, 참다운 동지애의 력사가 창조되게 된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지니신 한없이 숭고한 동지적사랑, 혁명적의리에

나는 아들로서만이 아니라 공산당원으로 서 장울화렬사를 존경한다.

기인된다.

대부호의 아들이지만 불우한 망국소년과 죽마고우가 되여 친형제의 우정을 나누고 주석님께서 항일전장에 나서시였을 때는 재력과 심력을 다하여 수십자루의 무기와 막대한 물자, 자금으로 김장군부대를 후원 한것은 쉽지 않은 일이였다.더우기 김일성주석님의 직접적인 영향과 보증속에 혁명조직성원으로 성장하여 혁명활동을 벌리고 조선혁명의 심장인 김일성장군의 안녕을 위해 25살도 되지 않은 나이에 자결함으로써 순결한 우정을 지키고 혁명 적의리를 꽃피웠다.

아버지는 희미해지는 의식을 모아 성주, 나의 친근한 전우여, 나는 동무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소, 잘 있소라는 마지막말을 남겼다고 하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이국에서 사귄 한 벗 을 혁명의 길에 이끌어주시고 혁명전우가 희생된 후에도 잊지 못하시여 풍찬로숙의 꿈속에서 자주 만나시였을뿐아니라 온갖 세파속에서도 그를 조중친선의 상징으로, 국제주의전사의 전형으로 내세워주시였다.

아버지가 장렬하게 희생되였을 때 나는 4살, 아버지의 모습을 단편적인 표상으로 밖에 새기지 못하는 나이였다.그때까지 바깥출입을 모르고 살아온 나의 어머니는 아버지가 림종시에 남긴 유언을 듣고서야 남편이 김일성장군과 함께 혁명해왔다는것 을 알게 된 순박한 녀인이였다.

하여 나는 아버지와 김일성주석님사이에 친분관계가 깊었다는것만을 알고있었을뿐 그 관계가 친우의 관계를 훨씬 뛰여넘고 국경과 민족도 초월하는 그러한 혁명전우 의 관계, 동지의 관계임을 리해할수 없었다.

세월이 흘러 내가 27살이 되였을 때 조선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신 후부터 줄곧 우리 일가를 찾고계시던 주석님의 연줄이 마침내 닿아 우리 집에 찾아온 한 항일혁명투사에게 나의 어머니가 한 말 이 기억에 생생하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늘은 시간을 두고 변하고 사람은 일생을 두고 변한다는데 김일성장군님의 우정은 어쩌면 그렇게도 변 함이 없으십니까. 벌써 20년도 더 지났는데 아직도 저의 남편을 잊지 않고계시니 무슨 말로 감사를 올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라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에 이르 는 우리 가문의 후대들에게는 김일성주석님 과 장울화렬사의 우정과 의리의 세계, 세상에 다시없을 그 특출한 교우와 교분 에 대하여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것

이 글을 달린다.

그때는 어머니가 사리에 맞는 말을 하였 다고 여겼으나 지금 보면 그 인사말에 무엇

을 어쩔수 없다. 김일성주석님의 우정의 세계를 어찌 단 순한 친우관념에 머무르며 하늘이나 인간 일반의 변함에 비길수 있겠는가.

인가를 보충하고싶은 생각이 들군 하는것

인류공동의 재보일뿐아니라 우리 가문의 가보로 된 김일성주석님의 회고록 《세기 와 더불어》가 세상에 나왔을 때 나는 주석님의 심중에 출렁이던 숭고한 동지애 의 세계를 읽을수 있었다. 주석님께서는 회고록의 여러 대목에서 아버지를 회고하 시였으며 4권에서는 독립적인 두개 절로 갈라서 구체적으로 쓰시였다. 다음의 대목

이 더욱 눈물을 쏟게 하였다. 《나와 장울화의 우정은 장울화가 서거 한 다음에도 계속되었다. 장울화는 세상을 하직하였지만 나는 한시도 그를 잊은적이 없었다. 장울화가 남기고 간 그 인간적향 기는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나의 페부에 더 깊숙이 젖어들었다. 항일전쟁이 조중공 산주의자들의 승리로 끝났을 때 나의 추 억속에 제일 선참으로 떠오른 수많은 중 국의 동지들과 은인들가운데서도 장울화

는 단연 첫번째 자리를 차지하였다.》 나는 회고록을 통하여 주석님께서 지니 신 우정에 대한 비범한 견해와 지향을 알수

사람의 생존에는 명이라는것이 있어도 장울화에 대한 나의 우정에는 명이란 없 다. 진실한 우정은 생명보다 길다. 우정의 나이는 인생의 수명과 동갑이거나 세월의 어느 지점에서 끝나는 단명이여서는 안되 며 영원한것이여야 한다. …

인류는 인간생명의 유한성을 인식한 그 만큼 영생을 얻고저 장구한 세월 모지름을 써왔다. 하지만 혁명적우정의 무한함을 주 장하여 심각한 사색과정과 내적체험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으로서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여 마침내 그 영원을 이룩하신분은 세상에 오직 한분 김일성주석님이시다.

아버지에 대한 주석님의 영원한 우정은 후대들인 장씨가문의 우리 3대, 4대, 5대 에 대한 사랑과 배려로 계속되였다.

경애하는 주석님께서는 중국의 령도자들 을 통하여 우리들의 조선방문이 실현되도 록 하여주셨다.

만화방창한 봄날 나와 녀동생 장금록, 맏 아들 장기는 꿈결에도 그리던 김일성주석님 을 만나뵈왔다. 흰오리가 섞인 머리칼을 봄 바람에 날리시며 기다리시던 주석님께서는 환생한 아버지를 보시는것인지 말없이 우 리들을 주시하시더니 와락 한아름에 그러 안으시였다. 주석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였 다. 나도 동생도 눈물을 흘리였다.

아,우리 큰아버지! 샘솟는 눈물은 주석님과 우리들사이의 관계가 친혈육의 그것임을 말하여주고있었다.

주석님께서는 우리들을 만날 때마다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화제의 대부분이 우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주석님의 이야기는 중복되지 않았다. 능란한 잠수부 가 깊은 대양에서 진주보석을 골라내듯 하 여 아버지를 모르고 자란 우리들에게 피와 살을 가진 아버지의 생동한 모습을 주셨고 아버지의 유지가 무엇이였던가를 리해시켜 주시였다.

주석님의 이야기를 통하여 나는 내성적 이면서도 강직하고 열정적인 아버지, 정의 를 위함이라면 결단코 뛰여들고 일단 결심 만 하면 칼날에라도 올라설수 있는 성격의 아버지를 애틋한 마음속에 모실수 있었다. 진정 나에게 존경하는 아버지를

찾아주신분은 김일성주석님이시였다.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김일성주석님의 그 우정이 끝내는 반세기전에 떠나갔던 옛 전우의 생명도 재생시켜 자식들과 함께 있게 해주었고 중조 두 나라 인민의 마음속

에 길이 남게 하였다. 잊지 못할 첫번째 접견때 주석님께서는 금천아, 너의 할아버지 장만정은 조선의 독립운동을 도와주었고 너의 아버지 장울 화는 조선의 공산주의운동을 도와주었다, 너희들도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의리를 소중히 여기는 훌륭한 사람, 견결하고 굴함 없는 혁명가가 되여주기를 바란다고 하시 면서 자식을 가르치는 친어버이가 되시여

다음의 말씀을 하시였다. 돌아가면 아버지의 위업을 계승하여 일을 잘하고 지위를 탐내지 말며 우수한 공산당원이 되며 중국의 4개현대화에 이바 지하여야 한다.

주석님께서는 금천아, 자주 편지를 하여 라, 나는 일이 바쁘니 너의 편지에 일일이 회답편지를 보낼수는 없다, 이렇게 하자, 네가 나한테 두번 편지를 보내오면 나는 너 에게 한번 회답하도록 하자, 그러시고는 앞 으로 조선에 자주 오라고, 너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많아 사흘 낮, 사흘 밤 을 한대도 못다할것이지만 내가 너희들에 게 해주겠다고,지금은 국가주석으로서 인민을 위해 일을 해야 하고 책임이 무거우 니 시간을 낼수 없지만 너희들이 다시 오고 글을 써줄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된

또 오느라면 내가 년로보장을 받게 될것이고 너희들과 함께 다닐수도 있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때로부터 나는 8차레나 주석님의 접견 을 받는 영광을 지녔다.

조선에 올 때마다 외국에 간다는 생각이 드는것이 아니라 친아버지가 계시는 고국 에 오는 심정이였다. 주석님께서는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 려주시였고 우리들의 사업으로부터 살림살 이에 이르기까지 돌보아주시며 크나큰 은정을 돌려주시였다.

첫 조선방문때 주석님께서는 천사만량의 고려끝에 자신의 존함이 새겨진 금시계와 사진기를 선택하시여 우리들에게 주시였 다. 금시계에는 사람은 금과 같이 순결하고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와 무한대한 시간을 가리키는 시계처럼 우의심은 영원 하여야 한다는 깊은 뜻이 깃들어있었다.

사진기에는 무송에서 《형제사진판》을 운영하면서 주석님의 친솔부대에 사진기를 보내준 아버지에 대한 회억이 담겨있었고 사진업과 더불어 혁명에 기여한 아버지의 모범을 우리들이 이어가기를 바라시는 주석님의 심정이 어려있었다.

나는 김일성주석님을 모시고 장씨가문의 4대가 뜻깊은 좌석에서 들던 동소과술을 잊을수 없다. 주석님의 제의에 따라 유명한 술들중에서도 내가 가져온 무송의 동소파 술이 올랐다. 투명한 잔에 송화강물로 만든 술이 하많은 사연을 담고 찰랑이였다. 주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장내를 울리

게 만났다. 자, 첫잔은 우리모두 장울화 렬사를 위하여 들자. 주석님께서는 일군들의 만류에도 불구하

오늘 날씨도 아주 좋은데 우리가 또 이렇

고 석잔을 드시였다.

석잔, 무장항일의 나날 그이께서 아버지 와 동소파에서 만나실 때에 두분이 바로 석잔을 드시였기때문이리라.

무송시절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실현되 고 행복이 무르녹는 화기애애한 자리가 마련되였지만 못내 아버지를 잊지 못하시 는 주석님이시였다.

추억은 끝없건만 그중에서도 장울화렬사 서거 55돐에 즈음하여 무송의 남전자에 세워진 기념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언급해 야 할것이다. 주석님을 모신 영광의 자리에서 나는

아버지서거 55돐을 맞으며 묘비를 새로 세우려고 하는데 거기에 새길 비문을 써주 실것을 요청드렸다. 우리들의 진심과 진정을 고맙게 받아주

신 주석님께서는 너희들이 세우는 묘비에

고기 한

# 옛정 세기가

만대에 전하는 기념비이다.

나는 한생에 내자신이 시를 쓰게 되리라 고는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列内丘

타고난 시재도 없었거니와 인간과 그의 생활을 사진에 담는 나의 직업과도 관련되 였을것이다.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속에 시적령감이 뗘올랐고 격정으로 충만된 시어들이 샘솟았다.

꿈이 없었으면 하는 말 누가 하였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꿈속에서 삽니다

달뜨는 초저녁부터 해뜨는 아침까지 김일성주석 만나뵙는 꿈속에서 나는 삽니다

주석과 마주앉아 이야기하는 꿈 주석께 축배를 드리는 꿈 주석과 노래를 부르는 꿈 주석께서 나의 손을 잡고 무송땅을 거니시는 꿈

이런 꿈, 이런 꿈을 나는 좋아합니다 달콤한 꿈에서 깨지 말기를 나는 소원합니다

김일성주석님을 만나뵙는 꿈속에서 사는 나의 마음을 담은 이 시는 인류가 낳은 희세의 대성인을 잃은 비통함이 이 행성에 서 가셔질줄 모르던 시기에 씌여졌다.

그것은 영결의 애석함을 담은 시가 아니 였다. 그것은 설사 이 세상의 한끝에 간다 하여도 갈라질수 없고 세월이 아무리 흘러 도 헤여질수 없는 자애로운 성인이신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그리움의 분출이 였다.

위대한 주석님과 우리들사이에는 리별이 란 있을수 없었다.

왜냐하면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우리들의 친아버지가 되시여 우리 일가에 모든 행 복, 모든 영광을 안겨주시고도 모자라신듯 비록 서거하시였어도 우리들에 대한 사랑 과 은정의 손길을 끊지 못하시기때문이다. 고귀한 옛정은 세대를 이어 세기를 넘어 굽이치고있다.

김정일동지께서와 김정은동지께서는 우 리들에게 한치의 간격이나 한점의 그늘도 없이 육친의 정을 부어주시던 위대한 주석님이 되여주셨다.

피눈물의 7월, 무송의 하늘도 청천벽력 의 비보를 전하며 대줄기같은 비를 쏟아부 었다. 우리모두는 억장이 무너져내리는것 같았다. 처음에는 억이 막혀 소리없는 울음 을 울었고 다음에는 흐느껴울었으며 그다 음은 대성통곡이 끊길줄 몰랐다.

얘들아,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이다라고 하시던 주석님의 자애로운 음성이 들려왔으며 온 세계가 모여 주석님 의 탄생일을 경축하던 때에 장울화일가의 5대인 다섯살 난 장맹맹이를 두손으로 추켜드시여 품에 꼭 안아주시고 볼을 비벼 주시던 인자하신 모습이 안겨왔다.

평양에서 처음으로 설을 쇠는 4대들인 장유와 악지운의 숙소에 찾아오시여 손자 와 손녀가 설을 쇠는데 할아버지가 와봐야 지라고 하시며 장씨가문의 수교즈의 래력 과 중국노래 《소무가》에 대한 고사도 들려 주시며 큰할아버님의 따뜻한 정을 부어 주시던 고매한 인덕도 어려왔다.

너무도 진실하시고 평범하시며 그래서 더 위대하시였던 주석님, 자신을 돋구려고 도, 누구의 마음을 사려고도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속생각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 내시던 주석님의 환하신 미소와 웅심깊은 말씀, 친근하신 손동작…

그때에 우리 집에 꾸려놓은 조의표시방 에도 무송현의 지도일군들과 각계인사들, 무송인민들이 그칠새없이 찾아왔다.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령전에 조의를 표하기 위하여 평양으로 향하였다. 금수산의사당(당시)에 들어서니 추도곡 이 울리고있었다.

나는 먼저 주석님께 큰절을 올리고 꿇어 앉아 머리숙여 인사하고는 땅바닥에 풀썩 주저앉았다. 무엇인가 주석님께 말씀드리고 싶었다.

경애하는 큰아버님, 주석님께서는 올여름 에 다시 조선으로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 까. 저희들은 이미 준비를 갖추어놓고 기다 렸습니다. 지난해에 찍어드린 큰아버님의 사진을 액틀에 모시고 선물로 드리려고 하 였습니다. 저와 금록이가 큰아버님께 여쭈 려는 말씀도 가슴에 차넘칩니다.애들은 큰아버님께 불러드릴 노래까지 다 준비하 였습니다. 그런데 큰아버님께서는 어찌하여 저희들이 올 때를 기다려주지 않으셨습니 까. 무송에서는 주석님을 기다리고있습니 다. 큰아버님께서 싸우시던 곳에도 가보시 고 잊지 못할 거리들도 거니시고 전우의 묘에도 가보시고. 그런데 이렇게 누워계시 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김정일동지께서는 호상을 서고계시 였다. 그이께서는 나의 손을 굳게 잡아주시 였다. 나는 김정일동지께 위안의 말씀을 올리려 하였으나 목이 꽉 메여 아무 말도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비할바 없는 가장 큰 상실의 아픔을 이겨내시던 김정일동지께서 오히려 나를 위안해주시

언제 평양에 왔습니까. 다들 잘 있었습니 까. 너무 슬퍼하지 말고 건강에 주의하십시 오. 오느라 수고하였습니다.

웅심깊고도 사려깊으신 그이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하늘같으신 그이 의 위인상이 나의 심장속에 안겨들었다.

그 누가 저 하늘의 태양이 꺼졌다고 하였 던가. 아니, 태양은 영원한것이다. 피눈물의 바다우에 태양은 더욱 붉었다.

나에게는 김정일동지의 모습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모습으로 안겨왔다. 강인하면서도 인자하신 그분의 모습을 우러르느라니 40여일전 위대한 주석님께서 우리 일가에 주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되새겨지는것이였다.

내가 지금까지 건강한 몸으로 사업하고 생활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김정일동지의 덕이다. 그는 나의 건강을 보장하는데서 공 로가 아주 많다. 앞으로 우리 나라에 계속 놀러 오너라. 김정일동지가 장울화의 가족 들을 잘 돌봐줄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어려 워하지 말고 매해 한번씩 우리 나라에 오너 라. 너희들은 나를 믿고 따르는것처럼 김정일동지를 믿고 따라야 한다. …

위대한 주석님의 금언같은 그 말씀을 새 겨보느라니 김정일동지께서 주석님의 뜻대 로 고귀한 옛정을 귀중히 여기시며 우리 장울화일가를 위하여 기울여오신 남모르는 사연과 사실들이 눈앞에 밟혀왔다.

우리들이 조선에 찾아올 때마다 영접행 사와 숙소선정, 방문일정까지 국빈급에서 하도록 친히 조직사업을 해주시고 금강산 과 묘향산, 송도원을 비롯한 명산명처들 에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도록 해주신 김정일동지,

렬사의 손자, 외손녀인 장유와 악지운이 가장 훌륭한 초대소에서 《왕자》, 《공주》와 같은 대우를 받으며 류학을 하도록 하시고 맏아들 장기의 무역활동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신 김정일동지,

우리들이 조선인민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게 해주신 위대한 그이께서는 주석님을 모시고 무한한 영광과 더없는 행복을 누리 는 자리들에 한번도 나선적이 없으시였다. 하지만 우리들은 일군들을 통하여 김정일동지께서 주석님과 장울화렬사의 우정을 무엇보다 귀중히 여기시며 그 뉴대 를 더욱 굳건히 다져주시기 위해 누구보다 마음쓰시였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지나온 년대들은 김정일동지의 천출위인상과 더없이 고매한 륜리도덕관에 대하여 온 세상에 보여주었다.

그중에서도 잊을수 없는것은 위대한 주석님께서 계시던 금수산지구를 주체의 최고성지로 꾸리고 금수산태양궁전에 주석님을 생전의 모습으로 모시도록 하신 것이다.

그것은 조선인민들과 세계의 량심 그리 가며 칭송해야 할 거대한 공적이고 은공이

였다. 우리들은 그후 조선에 찾아올 때마다 금수산태양궁전에 계시는 위대한 주석님을 만나뵈옵게 되였다.

르던 우리들도 번쩍 정신을 차리고 주석님 의 체취가 어려있는 우리 가문의 옛집에 《김일성주석기념판》을 꾸리게 되였다. 《김일성주석기념관》을 꾸리는것은 주석님 의 하해같은 은정을 받아안은 우리들의 결초보은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정신 적요구로 되였다. 어른들은 물론 아이들도 기념판을 세우는것을 더없이 신성하게 여기였으며 하나하나의 사적물에 보은의

우리는 한해동안 공사를 벌려 위대한 주석님의 서거 1돐을 맞으며 《김일성주석 기념관》을 개관하였다.

한마음을 실었다.

외국의 한 가정에서 위인의 기념관을 꾸리는것은 세상에 처음이였지만 우리는 그것을 너무도 응당한 도리로 여기였고 결초보은의 첫걸음으로 생각하였을뿐이다. 김정일동지께서 우리들에게 돌려주신 우의의 정은 날이 갈수록 더욱 뜨거워졌다. 그중에서도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주신

화환을 장울화렬사묘에 진정하는 의식이 진행되였던 1997년 10월 27일을 잊을수

김정일총비서께서는 일군들에게 장울화 렬사가 장렬하게 희생된 때로부터 60돐이 되는 날에 화환을 보내줄데 대한 가르치심 을 주시였다.

참으로 신비스러운 일이였다. 5년전 김일성주석님께서 장울화렬사를 위하여 기념 비를 보내주실 때와 같이 김정일총비서께서 보내주신 화환이 무송에 도착하자 하늘에 서는 또다시 렬사의 명복을 빌어 종이돈을 뿌리듯 흰눈이 내려 대지를 덮어주었다. 화환은 김일성주석님께서 세워주신

장울화렬사기념비앞에 정중히 진정되였다. 《장울화렬사를 추모하여

### 정 일 》

화환의 꽃송이들은 렬사에게 보내는 주석님과 김정일동지의 인사를 전하여주고 있었고 붉은 댕기는 세월의 흐름에도 변색 되지 않는 우정을 말하여주고있었다.

진실한 우정은 영생하는 위인들의 심장의 음향이고 지울수 없는 력사의 메아리이다.

화환진정의식에 참가한 사람들은 장울화 렬사가 비록 60년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 의 생의 불길은 계속 타오른다는것을 페부 로 느꼈다.

그들모두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김일성주석님과 장울화렬사의 우정은 변함 없이 이어지고있다는것을 엄연한 현실로

김정일동지께서는 장울화렬사의 서거 70돐을 맞으며 또다시 화환을 보내주시여 고귀한 옛정이 세기를 넘어 변함없이 흐르 게 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해마다 설날이 오면 주석님 을 대신하여 우리들에게 신년축하장을 보내주시였으며 70돐 생일을 맞는 나에게 은정어린 선물도 보내주시였다.

우리 중국에는 보검은 영웅에게 드린다 는 속담이 있다.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장검 을 집을 지키는 보검으로 여겨왔고 권력, 승리, 힘을 상징하는것으로 전하여왔다.

언제인가 우리는 김정일동지께 청동으로 만든 옛 장검을 선물로 올리는 영광을 지니 였다.

온 가문이 모여앉아 많은 생각끝에 도달

한 선택이였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김정일동지는 천하대적도 이기시는 영웅 이실뿐아니라 의리와 인덕으로 인간세계 를 아름답게 가꾸시는 영웅중의 참영웅 이시였다.

시공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진실한 우정 은 력사의 풍운속에서도 풍화되지 않고 인 간세계를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준다.

어떤 대가와 보상도 바라지 않고 바치는 것을 곧 행복과 락으로 여기는 그 우정은 인간세계를 끝없이 정화시켜주며 천하를 밝 게 비치고있다.

그것은 고상한 륜리도덕으로 건설하는 사회주의에 대한 힘있는 긍정이며 자주적 인것으로 하여 더없이 아름다운 인간본성 에 대한 긍지높은 주장이고 례찬이라고 생 각하다.

인간사랑, 인간존중의 화원을 펼쳐가시는 대성인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동지의 옛정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맥맥히 이어지고 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강성국가건설을 이끄 시는 바쁜 속에서도 2012년 10월 장울화 렬사의 서거 75돐,생일 100돐을 맞으며 자신의 명의로 된 화환을 보내주시고 위로 연회를 차려주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시였다. 김정은동지의 후더운 은정이 고이고고인 연회상을 마주한 우리들의 마음은 이루

형언할수 없었다. 행복한 순간이면 언제나 그러하듯이 김일성주석님의 인자하신 음성이 들려

왔다. 금수산의사당의 연회석상에서 소고기료 리가 들어오고있을 때 식사안내표를 보시 던 주석님께서는 장유에게 말씀하시였다.

마음놓고 먹어라. 다른 사람들의것은 소 고기이지만 네건 돼지고기야. 네가 소고기 를 안먹는다는것을 알고있다. …

언제인가 주석님께서는 식탁에 둘러앉은 손자손녀들에게 말씀하시였다.

내가 동북의 무송에서 오래동안 생활하 고 우리 가문에 있어서도 대를 두고 전해 면서 그곳 빙탕후루에 대하여 대단히 흥미 를 가지였는데 그 막이 좋았다. 오늘 너희 들이 왔기때문에 내가 료리사들에게 만들 어주라고 하였다. 어디 비슷한지 너희들이 맛을 보아라.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생일 80돐 김정일동지께서 지니신 륜리도덕의 숭고한 을 맞는 우리 부부에게 귀중한 선물을 보내 모범을 따라 비애의 바다에서 헤여날줄 모 시고 조선대표단을 파견하여 축하하도록 하

여주시였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80고령의 우리 부부 가 30여일동안 평양의 초대소에 머무르면 서 유명한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하시였다. 다시는 앞을 잘 볼수 없다는 체념에 빠지였 던 안해가 광명을 되찾게 되였고 나는 로년 기이면 어쩔수 없다던 병들을 털어버리고 로당인장하게 되였다.

평양의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는 보 석화로 형상한 나의 아버지 장울화의 초상

도 있다. 사랑에 국경이 없고 과학에 국경이 없는 것처럼 혁명에도 국경이 없다는것이 위대한 주석님께서 지니시였던 지론이였다. 나의 아버지 장울화를 조중친선의 상징으로. 국제주의의 세계적모범을 보여준 거성으로 빛내여주신 김일성주석님의 숭고한 우의의 세계를 오늘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켜가고계시는것이다. 우리 장울화일가가 받아안은 뜨거운 사랑의 력사는 진정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만이 창조하실수 있는 숭고한 우의의 서사시

세월은 흘러 장울화가문에 6대가 태여

그애가 태여나던 날 나에게는 장울화의 고손을 보고싶다고 하시던 위대한 주석님 의 음성이 들려왔다.

하여 나는 아이에게 속삭였다.

났다.

얘야, 어서 크거라. 크거들랑 이 세상에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사랑이 있고 한없 이 굳건한 뉴대가 있는가를 알게 될것 이다.

너도 그 아름다운 화원을 꽃피우는 한송이 꽃이 되거라. …

위대한 주석님께서 서거하신 때로부터 스무번째의 돌기가 새겨졌지만 김일성주석님 과 장울화렬사의 우정은 계속되고있다.

위대한 주석님의 우정은 장울화렬사의 생을 영원에로 이어주고 우리 후대들을 변함없이 보살피신다. 세기가 바뀌고 강산은 변하여도 주석님

의 우의의 숭고한 모범은 끝없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흘러들며 인간세계를 아름답게 정화시켜줄것이다. 인류의 대성인이신 김일성주석님은

영원히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고 그이의

숭고한 우의심과 고결한 인덕은 천하를 밝히고있다. (필자는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장울화의 아들임.)

# 전병호동지의 장의식

조선인민군 륙군대장이며 조선 인민군무장장비관 명예관장인 전병호동지의 장의식이 10일 평양에 서 국장으로 진행되였다.

장의식장인 서장회관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끝없이 충실하였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받들어 군수공 업의 주체화,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친 로혁명가를 잃은 비애에 휩싸여있었다.

장의식에는 김영남동지, 황병서동 지를 비롯한 국가장의위원회 성원들 과 당, 무력기관, 내각, 국방공업부 문, 평양시당 일군들, 고인의 유가족 들이 참가하였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고인의 령구옆에 서있었다.

국가장의위원회 성원들, 유가족들 이 고 전병호동지를 추모하여 묵상

추도곡이 울리는 가운데 고인의 령구가 발인되였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령구에

들어 총!》을 하였다. 령구차는 애국렬사릉을 향하여 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각별한 사랑

전병호동지

조선인민군 륙군대장이며 조선인

민군무장장비관 명예관장인 전병호

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김영남동

지, 박봉주동지를 비롯한 국가장의

위원회 성원들, 당, 무력,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국방공업부

문, 평양시내 당, 정권기관 일군들이

고인의 령구를 찾아 조의를 표시하

조객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고 군수

공업부문에서 오랜 기간 사업하면서

나라의 국방력강화에 지울수 없는

혁명,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

였다.

과 은정속에서 유능한 일군으로 성장 한 전병호동지는 지난 조국해방전쟁 과 전후복구건설, 사회주의건설시기 전쟁승리를 앞당기고 우리 당의 경제 건설과 국방건설병진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나라의 자주권과 혁명 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온갖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를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으로 내 세워주시고 자위적국방공업의 강화 발전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성스러운 사업에서 혁명적본분 을 다해나가도록 걸음걸음 세심히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랑과 정을 이으시여 로혁명가에게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 면서 그가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국방공업부문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한 길 에서 삶을 빛내여나가도록 따뜻이 보살퍼주시였다.

거리에서 수도시민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 고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주체혁명위 업, 선군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한 전병호동지를 잃 은 애석한 마음을 안고 깊은 애도의

국가장의위원회 성원들, 당, 무력,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국방공업부문 일군들 고 전병호동지의 령구를 찾아

으로 투쟁하여온 혁명전사를 잃은 크

나큰 슬픔을 안고 조의식장인 서장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화

환이 고인의 령구앞에 놓여있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령구옆에는 고인의 유가족들이 호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령구옆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

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

상임위원회,조선민주주의인민공

회관을 찾았다.

상을 서고있었다.

에 서있었다.

령구차는 애국렬사릉에 도착하 였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 있었다.

영결식이 진행되였다. 애국가가 주악된 다음 인민무력 부장인 조선인민군 륙군대장 현영철

동지가 애도사를 하였다. 추도곡이 주악되고 조총이 발사되 는 속에 고인의 유해가 묘지에 안치 되였다.

고인의 유가족들, 국가장의위원회 성원들이 흙을 덮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묘에 진정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 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조선인민군 총 참모부, 인민무력부를 비롯한 여러

전병호동지는 비록 서거하였으나 우리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세운 그의 공적은 길이 남아있을것이다.

화국 내각,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인민무력부

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국방공

업부문, 평양시내 당, 정권기관, 공

장 등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

추도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객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 주체

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완성을 위

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생을 바친 고

전병호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그들은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심심

되였다

기관의 화환들이 진정되였다. 참가자들은 고 전병호동지를 추모 하여 묵상하였다.



오늘 우리는 커다란 슬픔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충직한 혁명 전사이며 우리 당과 인민의 귀중한 로혁명가인 전병호동지와 영결하게 됩니다.

성스러운 선군혁명의 길에서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온 전병호동지는 그렇게도 념원하던 조 국통일의 날을 보지 못한채 심장의 고동을 멈추고 애석하게도 우리의 곁 을 떠났습니다.

전병호동지와 영결하게 되는 이 비통한 시각 우리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을 굳게 믿고 따르며 선군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한생을 다 바쳐온 귀중한 혁명동지를 잃은 크나큰 슬픔과 북받치는 애도의 정을 누를수 없 습니다.

일제식민지통치의 가장 암담한 시기인 주체15(1926)년 3월 20 일 자강도 전천군 빈농민의 가정에 태여나 망국노의 피눈물나는 생활을 강요당하던 전병호동지는 해방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품 속에서 당원으로, 유능한 일군으로 성장하여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였습 니다.

동지는 해방직후 경위대에서 복 무하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를 무장으로 결사호위하였으며 준 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부터 군수공 장 공정원, 부장, 기사장으로 사업 하면서 전쟁의 승리를 앞당기며 나 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 에 온갖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였 습니다.

전병호동지는 전후 당의 자위적군 사로선을 옹호하여 반당반혁명종파 분자들과 견결히 투쟁하였으며 경제 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받들 고 군수생산보장을 위하여 몸바쳐 투 쟁하였습니다.

동지는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 시기부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의 높은 정치적신임에 의하여 당중 앙위원회 부부장, 부장, 비서의 중 임을 지니고 주체적국방공업의 위 력을 강화하는데 적극 기여하였습 니다.

동지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사 회주의적공세가 집중되던 준엄한 고 난의 행군시기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를 받들어 인민군대의 무장 장비를 현대화하기 위하여 정력적으 로 투쟁하였으며 우리 조국을 인공 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 핵보유 국으로 전변시키는데 특출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전병호동지는 김일성 【조선중앙통신】 기정일주의로 철저히 무장하고 생명

의 마지막순간까지 당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었으며 참다운 혁명 전사는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 는가를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주었습

전병호동지는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 확고한 혁명적 원칙성과 겸손한 품성으로 하여 우 리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전 병 호 동 지 의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크나큰 정치적 신임과 친어버이사랑속에서 혁명전 사의 가장 큰 영예와 값높은 삶을 빛 내여온 보람찬 한생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전 빈농민의 아들로 태여나 식민지노예살이를 강요당하던 전 병호동지에게 혁명의 군복을 입혀 주시고 경위대에서 복무하도록 크나큰 믿음과 은정을 돌려주시였 습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는 경위대시절 전병호동지를 《꼬마 동무》라고 사랑을 담아 불러주시면 서 총쏘는 법도 배워주시고 당원의 영예를 지니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 였으며 나어린 병사가 무랍없이 올 리는 청도 탓하지 않으시고 류학도 보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준엄한 조국 해방전쟁시기 류학을 마치고 돌아와 군수공장에서 일하는 전병호동지를 만나주시고 김정숙동무의 사랑속에 서 조선로동당원으로, 기사로 자라 난 동무를 보니 김정숙동무의 생각 이 더 난다고 하시면서 옛 경위대원 답게 일을 잘하라고, 로동계급에게 서 혁명성을 배우고 그들에게 기술 을 배워주라고 고무격려해주시였습 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전병호 동지를 체계적으로 키워 군수공장 기 사장으로 내세워주시였으며 동지가 일하는 공장에 여러차례 찾아오시여 사업과 생활을 세심히 보살펴주시고 공장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 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군수공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온 전병호동지에게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부장, 비서, 정치국 위원,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의 중임을 맡겨주시였으며 나라의 국방공업을 책임지고 한번 본때있게 일해보라 는 크나큰 믿음과 용기를 안겨주시 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창건 65돐경축 열병식을 통하여 우리의 자위적국방공업의 위력을 다시한번 시위하였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현대 적이며 위력한 무장장비를 가지게

혁명투사

사업한 전병호동무의 공적이라고, 그가 이룩한 공적을 나만큼 아는 사람은 없다고 최상최대의 평가를 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병호동지 가 내각정치국 국장 겸 당위원회 책임비서로 임명받은 후에도 동지의 사업을 료해하시고 전병호동무가 내각사업을 추켜세우기 위하여 일을 잘하고있다고. 그는 우리 당에 충실 한 일군이라는 과분한 치하의 말씀 을 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부터 자신과 함께 일하던 일군들가운데서 많은 사람들 이 세상을 떠나고 지금은 전병호동 무밖에 남은 사람이 없다고 하시면 서 열화같은 동지적사랑으로 현대 의학이 사형선고를 내리였던 동지를 소생시켜주시였습니다.

전병호동지가 난치의 병으로 고통 받고있을 때에는 여러차례 다른 나 라에까지 보내시여 치료를 받도록 해주시고 해마다 휴양을 보내주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약과 색다른 식료품, 치료기구들을 안겨주시며 동지의 건강과 생활을 육친의 정으 로 따뜻이 돌보아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보살피심속에서 동 지는 오랜 기간 당과 혁명의 중요하 직책에서 생의 뚜렷한 흔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병호 전 내각정치국 국장은 오래 동안 군수공업부문에서 일하면서 조 선인민군무장장비관에 전시한 무기 와 전투기술기재들을 만드는데 다 관여하였다고 하시면서 년로보장을 받고있던 전병호동지를 인민군대에 복대시키고 륙군대장의 군사칭호를 수여하여주시였으며 인민군무장 장비판 명예판장으로 사업하도록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였습 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공 지구위성《광명성-3》호 2호기 발 사에 성공하였을 때에는 위성발사 에서 성공하니 전병호동무가 생각 났다고,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 어온 이런 일군들이 있어 오늘의 성과가 이룩된것이라고 하시면서 동지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습 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병 호동무는 일하는것보다 그저 조선인 민군무장장비판 명예판장으로 앉아 만 있어도 된다고 하시며 년로한 동 지의 건강을 위하여 온갖 치료대책 과 은정어린 조치를 거듭 취해주시 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병 호동지가 사망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면 서 장의를 국장으로 하도록 하시고 된것은 군수공업부문에서 오래동안 몸소 장의위원회 위원장이 되시여

장의행사를 잘하도록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시였으며 동지의 령전에 자신의 명의로 된 화환을 보내주시 고 유해를 애국렬사릉에 안장하도 록 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시였습니다. 혁명선배들에 대한 뜨거운 동지적사랑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선군혁명령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어제저녁 전병호동지의 령구를 찾으시여 군 수공업부문에서 오랜 기간 사업하 면서 나라의 국방력강화에 지울수 없는 커다란 공적을 쌓아올린 동지 의 한생을 높이 평가하시였으며 전병호동무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총대동지라고 하시면서 그의 자료를 《최고사령관과 전우 관》에 전시하며 당과 수령에 대한 그의 충실성을 새 세대들이 따라배 우도록 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

전병호동지는 한생을 국방공업 부문에서 사업하면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세운 특출한 공로로 하여 공화국의 최고훈장인 김일성훈장 2상과 김정일훈장. 공화국2중영웅칭호와 로력영웅칭 호를 비롯한 많은 훈장과 표창들 을 받았습니다.

을 주시였습니다.

참으로 전병호동지는 해방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따사로운 품에 안긴 그날로부터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하늘 같은 사랑과 배려속에서 혁명전사의 가장 값높은 삶을 누려왔으며 생을 마친 후에도 당과 수령, 인민의 추 억속에 영생하는 삶을 누리게 되였 습니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령도에 의하여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위용이 만방에 떨쳐지고 우리 혁명의 앞길에 밝은 전망이 펼쳐지고있는 때에 전병호동지와 같은 로혁명가를 잃은것은 우리 당 과 인민에게 있어서 크나큰 손실로 됩니다.

우리는 선군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한생을 바친 전병호동지를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며 동지가 그토록 바라던 혁명위업을 완수하 기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감 으로써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고 삼천리강 토우에 륭성번영하는 백두산통일 대국을 반드시 일떠세울것입 니다.

전병호동지는 비록 서거하였으나 동지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 에 세운 공적은 길이 남아있을것입

고 전병호동지여!

주체103(2014)년 7월 10일

### Ш ᅙ 원 장 회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울란바따르

통 령

# 짜히아긴 엘베그도르쥐각하

나는 몽골인민혁명승리 93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이며 훌륭한 친선협조관계가 공동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날로 더욱 확대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친선적인 몽골인민에게 보다 큰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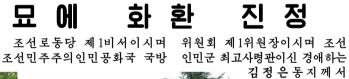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남

주체103(2014)년 7월 10일

불요불굴의 투사이시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 탄생

120돐에 즈음하여 10일 강동군 만경대에 있는 선생님의 묘에 봉화리에 모신 선생님의 동상과 화환들이 진정되였다.





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형직선생님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선생님의 동상과 묘 앞에 놓여있었다.

김형직선생님의 동상과 묘앞에는 조 선인민군 명예위병 들이 서있었다. 화환진정들에는

김영남동지, 박봉주 동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박도춘 동지, 양형섭동지, 리용무동지, 최부일 동지, 곽범기동지와 임철웅내각부총리, 김영대 조선사회민 주당 중앙위원회 위 원장,김수길 평양 시당위원회 책임비 서,당,무력,정권

기판,근로단체,성 중앙기관 일군들, 인민 군장병들,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참가하 였다.

김형직선생님의 동상과 묘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였다.

이어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부대, 교육, 보건, 출 판보도기관, 평양시내 당, 정권기 판, 기업소, 농장 등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였다.

참가자들은 지원의 숭고한 뜻을 안으시고 험난한 력사의 새벽길을 헤치시며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자 유와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 에 모든것을 바치신 김형직선생님 의 빛나는 혁명생애와 투쟁업적을 돌이켜보며 묵상하였다.

이날 김형직군의대학과 삭주 군, 중강군에 모신 김형직선생님 의 동상에도 화환과 꽃다발, 꽃송 이들이 진정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사무치 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으로 온 강산이 끓고있는 지금 각지 농촌경리부문의 선동원들은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교양 으로 대중을 당면한 영농전투에 로 추동하기 위한 선동사업을 진

공적으로 벌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한생은 이민 위천을 좌우명으로 삼고 사상 과 령도에 구현하여 현실로 를 비롯하여 농장이 나아갈 길 꽃피우신 인민적수령의 숭고한 한생이였다.》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선 동원들은 영광의 땅에서 살며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들끓는 포전에서 어버이수령님 의 불멸의 령도업적교양을 화 있다.

이들은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릴데 대하여 하신 가요 《우리 수령님》, 《포전길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걸을 때면》,《수령님 같으신분 심장에 새기고 음향증폭식메가 세상에 없습니다》를 비롯하여

각 지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령도 업적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드세게 벌리고있다. 농장의 선동원들은 여러차례 나 농장을 찾으시여 논벼 정보 당 수확고를 높일데 대한 문제 을 환히 밝혀주신 어버이수령님 의 불멸의 령도사적을 농장원 들의 귀에 쏙쏙 들어가게 구수 하면서도 통속적으로 해설해 주고있다. 선군시대 모범선동 원인 최명화동무가 작업의 쉴 참에 들려준 어버이수령님에 선식으로 힘있게 벌려나가고 대한 전설같은 사랑의 이야기 는 농장원들의 가슴마다에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꽉 차 넘치게 하였다. 농장원들은

폰을 가지고 대중속에 들어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의 노래를 부르면서 영 농전투에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갔다.

농 촌 경 리 부 분

령도업적교양으로

평 양

안주시 상서협동농장 선동원들 은 농장에 새겨진 어버이수령님 의 불멸의 령도사적내용을 농장 원들의 가슴속에 깊이 심어줄뿐 아니라 실천적모범으로 그들을 수령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투쟁 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서는 자리를 뜰수 없다는 비상 있다.

대중을 교양하고 발동하는데 서 열, 백마디 말보다 하나의 이 신작칙이 더 큰 감화력을 가진 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이들은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념원을 활짝 꽃피우기 위한 올해전투 의 가장 어렵고 힘든 곳에 자 신들을 먼저 세우고 헌신하고

있다. 선군시대 모범선동원인 불멸의 령도업적교양을 잘해나

을 찾으시여 새로 만든 모내는 기계의 부족점도 바로잡아 주시고 평범한 제대군인분조장 에게 포기농사방법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자나깨나 심장에 새기고 그 누구보다 분발하여

장향순동무는 여러차례나 농장

농업생산

선 동 원

일하고있다.매일 전투과제를 두몫,세몫씩 해제끼지 못하고 한 각오로 가슴을 불태우며 당 의 농업정책관철에서 결사관철 의 투쟁기풍을 발휘하고있는 그 의 모습은 농장원들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농사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더욱 깊이

새겨주고있다. 구장군 읍협동농장의 선동원 들은 선동의 실효를 높이는데 힘을 넣으면서 어버이수령님의

가고있다.

적 극

선동원 변경희동무는 하루작 업을 마치고는 밤을 밝혀가며 다음날 진행할 선동자료들의 준 비에 뼈심을 들이였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농장원들을 대상 으로 하여 화선식선동을 패기있 게 벌리였다.

강냉이농사를 잘하고 선진적 인 남새재배방법을 받아들여 남 새농사를 잘할데 대하여 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깊이있 게 해설하면서 진행한 그의 선동은 농업근로자들에게 수령님의 전사, 제자된 자각을 한껏 불러일으키였다.

한평생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해결을 위하여 그처럼 마음써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념원을 활짝 꽃피울 일념밑에 농업근로자들은 한사람같이 뗠 쳐나 영농전투를 다그치였다.

신천군 새길협동농장의 선 동원들은 뜨거운 인정미로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령도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 내이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의 마음을 달구어 주고있다.

농업근로자들의 가정도 방문 하고 생활에서 걸리고있는 문 제들도 풀어주면서 기울이는 이곳 선동원들의 진정은 농업 근로자들에게 오늘의 사회주의 수호전의 전초선인 농업전선에 서 보다 큰 혁신과 위훈을 창조 해갈 열의로 심장을 불태우게 하고있다.

이밖에도 은파군 강안협동 농장, 태탄군 운산협동농장, 삼천군 방남협동농장, 의주군 읍협동농장, 시중군 안찬협동 농장 선동원들을 비롯한 각지 농촌경리부문의 선동원들은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령도 업적교양으로 당면한 영농전투 에 펼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의 정 신력을 총폭발시키고있다.

丕

# 심금을 울리는 해설담화

였다.

덕성탄광 초급당위원회 에서는 당원들과 탄부들이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심과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 고 당면한 석탄증산투쟁에 한사 띾같이 떨쳐나서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

당조직들에서는 사상교양사 업계획에 따라 도서 《인민들속 에서》에 대한 독보사업과 연구 발표모임,영화문헌학습 등을 정상적으로 조직진행하고있다.

리고있다.

그리고 초급일군들과 선동원 들을 잘 준비시켜 그들이 당원들 과 탄부들속에서 어버이수령님 의 이민위천의 숭고한 리념과 인민사랑의 고매한 덕성에 대한 해설담화를 계기와 공정에 맞게 활발히 벌리도록 하고있다.

얼마전 어느 한 막장에 내 려간 초급당위원회의 일군은 도서 《인민들속에서》에 대한 독보사업을 탄부들이 받아안 민 은 자애로운 어버이사랑과

결부하여 실감있게 진행하 였다.

일군은 인민을 위하여 바치 는 헌신을 가장 보람있는 일로 여기시고 논두렁길과 막장길 을 걸으시면서 인민들속에 계시였으며 언제나 인민들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세상 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 하시고 인민대중중심의 사회 주의조국을 유산으로 남기신 어버이수령님의 한평생에 대 하여 뜨거움에 젖어 이야기하

초급당일군의 해설은 탄부들 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전에 1 0년만 젊었어도 막장에 들 어가 석탄을 캐고싶다고 하신 가슴뜨거운 말씀을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이곳 탄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령도를 석탄증산성과로 받들어갈 불같

은 결의에 넘쳐있다. 로농통신원 연전행

### 이 땅우에 수령영생위업실현의 위대한 새시대가 펼쳐진 때로부터 어언

20년세월이 흘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절대불변의 신 념과 의지를 간직한 우리 인민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지는 불타는 그리움의 정을 시대의 명작들에 담아 절절하게 터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불멸 의 업적을 옹호하고 길이 빛내여 나가는것은 우리 분학예술의 첫째

가는 본분이고 가장 영예로운 입 무입니다. 》 지난 20년동안 문학예술부문에서

는 인민의 심장속에 영생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칭송하고 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 리움을 감명깊게 형상한 소설,시,음 악, 미술 등 다양한 주제와 형식의 예 술작품들이 나왔다.

김일성조선의 영원한 태양의 력사를 만대에 길이 전하는 이러한 문학예술 작품들은 그 내용과 형식의 철학적심 오성, 형상의 진실성에 있어서 최상의 경지에 이르고있다.

위인들에 대한 추억과 회고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데서 문학예술의 역할은 참으로 크다. 위인의 력사를 생동하게 재현한 문학예술작품을 보면서 후세사 람들은 당대의 위인들과 심장의 말을 나누기도 하고 그들이 살아있는것만 같 은 현실적인 느낌을 받아안게 된다.

하다면 만민의 심장속에 영원히 살아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을 주제로 한 문학예술작품들의 사상예술 적특징은 무엇이며 그 문학사적,사회 력사적의의는 어디에 있는것인가.

우리 수령님은 단순한 그리움이나 추억으로가 아니라 인민의 심장속에 영원히 살아 고동치는 위대한 혁명사상 으로, 불멸의 력사로 영생하고계시는 만고절세의 위인이시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지대로, 수령님의 념원과 지향을 안고 영원히 수령님과 함께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 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가고있으며 이러한 영생의 진리를 사상예술적으로 뚜렷이 확증하는 훌륭한 명작들을 창 작하여 김일성민족의 귀중한 정신문화 적재보로 길이 전해가고있다.

생

위인의 업적과 위대성을 칭송한 작 품들가운데서 소설과 시가문학은 상대 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그 것은 소설, 시, 가요가 인민대중이 어 느때나 즐겨 보고 부를수 있는 가장 대 중적이며 생활적인 문학예술작품형식 이기때문이다.

지난 기간 문학부문에서는 수령영생 문학의 대표적작품인 총서 《불멸의 력 사》장편소설《영생》, 서사시《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 《평양시간은 영원하리라》, 《번영하라 김일성조국이 여》,《수령님은 영원히 백두산에 서계신다》와 같은 기념비적가치를 가지 는 문학작품들이 수많이 창작되였다. 수령이 생존해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수령이 서거한 후에도 수령을 형상한 소설, 시작품들이 보다 왕성하게 창작 되고 그것이 수령영생문학으로 보다 발 전풍부화되고있는것은 오직 우리 나라 문단에서만 찾아볼수 있는것이다.

력사 그자체를 생동하게 재현하여 후손들이 지나간 시대와 력사를 잊지 않게 하고 새 세대들의 가슴속에 추억 의 감정을 되살려주는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의 사상과 뜻을 대 를 이어 충직하게 받들어가려는 계승 의 의지가 맥박치는 작품이야말로 명 실공히 수령의 력사가 줄기차게 흐르 는 수령영생의 산 화폭인것이다.

세계문학사의 갈피를 더듬어보면 당 대의 위인들이나 성인들을 주인공으로 형상하거나 찬양한 소설이나 송가형식 의 시작품들은 많은 경우 개별적인 창 작가들의 의사에 따라 자연발생성을 띠 고 창작되였다. 인류가 일찌기 알지 못 하는 수령영생위업실현의 위대한 시대 가 펼쳐진 때로부터 수령영생을 주제로 한 문학창작활동이 목적의식적으로 광 범하게 벌어졌으며 그로부터 하나의 독 자적인 문학종류가 생겨나게 되였다. 그것이 바로 수령영생문학이다.

수령영생문학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100% 계승하고 수령님의 생전의 념원 과 뜻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 여 력사상 처음으로 출현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문학을 수령영생위업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힘있는 사상적무기로 보시고 수령영생 문학의 탄생과 그 창조과정을 세심히 지도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작 가들과 밤을 지새우시며 어버이수령님을 못 견디게 그리는 전체 인민의 간절한 소원을 반영한 영생주제의 총서작품창 작을 위한 방향과 방도를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의 업적을 칭송하는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영생》 이 세상에 나오게 되였다.

음악예술부문에서는 《수령님은 영원 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해빛같은 미소 그립습니다》,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 나라》를 비롯하여 수많은 수령영생송가들과 가요 《우리는 맹세한 다》, 합창조곡《백두산아 이야기하라》 와 같은 장중하면서도 무게있는 시대의 기념비적명작들이 수많이 창작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가요 《수령님 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를 수령영생가요의 대표적명작으로 완성 하기 위하여 수많은 노래를 들어주시 고 몸소 제목과 선률형상까지 다듬어 주시였다. 노래는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1돐을 맞으면서 수령님을 영원 히 높이 모시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신 념과 의지를 반영한 시대의 기념비적 대결작으로 창작완성되였다.

가요 《우리는 맹세한다》는 위대한 수령님을 잃은 크나큰 슬픔에 잠겨있던

우리 인민이 피눈물의 100일을 보내 고 힘과 용기를 내여 심장으로 합창하였 던 신념과 의지의 노래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노래를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위업, 그 유훈 을 받들고 당의 위업에 끝까지 충실하 려는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가 잘 반 영된 명곡으로 완성시켜주시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100일을 맞으 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마다에 억센 신념의 기둥마냥 새겨주시였다. 이 노래 는 전당, 전군, 전민을 어버이수령님의 유훈판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우리 수령님은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영원히 살아 고동치는 위대한 혁명 사상으로 영생하신다는것을 세계앞에 선언한 장엄한 음악포성이였다.

수령영생위업을 실현하는데서 우리의 미술은 위력한 수단으로 되였다.

미술부문에서는 조선화 《만민의 태양》, 대형조선화《피눈물의 해 19 9 4 년》,유화 《1 9 9 4 년 7월의 만수대언덕》과 같은 수많은 회 화작품들이 국보적인 결작으로 완성되 였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훌륭히 꾸리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만민의 심장속에 태양으로 영생하는 위대한 수령의 모습과 그 불멸의 력사 를 기념비적화폭으로 형상하여 후손만 대에 길이 전하는 이렇듯 훌륭한 명화. 수령영생미술작품들은 오직 우 리 나라에만 있는것이다.

지난 시기 미술에서 수령영생에 관한 문제는 그 어느 시대에도 론의되여본적 이 없었다.이 세상에 오직 한분,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 를 최상의 높이에서 체현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주체미술의 최고정화, 수령영생미술의 위대한 전 성기가 펼쳐지게 되였다.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을 생전의 모습그대로 영원히 높이 모시기 위한

그 창조과정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 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하여 수령님의 력사가 영원히 흐르도록 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면불휴 의 로고에 의하여 수령영생위업실현 에 이바지하는 시대의 결작들이 창작 되여 후세에 길이 전해지게 되였다. 이러한 명작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관철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의 심장 속에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 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새겨주었으며

수령영생미술창조사업을 발기하시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 하게 받들어나갈 충정의 맹세가 온 나 라 강산에 뜨겁게 굽이치게 하였다. 우리의 문학예술을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옹호하고 빛내여나가는 수령의 문학예술로 영원히 발전시켜나가는것 은 주체적문학예술건설의 기본원칙이

수령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대로

다. 우리 창작가, 예술인들은 천만군민 의 심장속에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 에 대한 흠모와 그리움의 정을 채워 주고 수령님과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 와 함께 계신다는 철석의 신념을 새겨 주는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 다. 그리하여 주체의 태양을 높이 모신 우리 인민의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 부심이 심장의 목소리로 울려나오게

수령영생문학예술의 시원을 열어놓 으시고 그 빛나는 창작전통을 마련하 여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는것은 새 세 대 문학예술인들앞에 나선 가장 영예 로운 임무이다. 문학예술부문의 창작 가, 예술인들은 수령형상창조의 전통 을 훌륭히 계승하여 수령영생위업실현 에 이바지하는 시대의 명작들이 폭포 처럼 쏟아져나오게 하려는 새로운 결 심과 각오를 안고 예술창작창조활동에 서 근본적인 혁신을 일으켜나가야 할

하여야 한다.

성

리 수 정

#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

0

0

각지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뜨거운 애국의 마음안고 고산과 수농장능력확장공사에 펼쳐나 선 6 1 8 건설돌격대 대원 들을 성심성의로 적극 지원

하고있다. 하 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 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 한 일을 스스로 찾아하 여야 합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

은 과일을 먹이시려고 마음쓰신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결사관철할 일념 을 안고 건설건재공업성 설계정보연구소 설계원 리강철, 간석지건설지도 국 간석지설계연구소 설 계원 한금석, 평양곡산공 장 로동자들인 리광철, 김 남준동무들은 선군시대 공민의 본분을 자각하고 들끓는 전투현장에 달려 나가 위훈의 구슬땀을 아 낌없이 바치였으며 성의 있는 지원으로 대중의 투 쟁열의를 북돋아주었다.

쳐지는 시대의 벅찬 숨결 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돌격대에 탄원한 모란봉 구역종합식당 로동자 김 금주, 온천군편의봉사관 리소 로동자 리경숙동무 들은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면서 돌격대원들 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좋은 일을 찾아하였으며 안주시가

호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 성심성의로 지원하여 대중

내축산관리위원회 리옥순, 강원도송배전부 원산시송배 전소 소장 김정수, 강원도체

신관리국 아래단위 부원 전 혜영동무들도 대규모과일생 산기지건설을 힘있게 지원하

였다. 많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이 고산과수농장을 비롯한 여러 대상건설을 다그치고있 는 618건설돌격대원들을

성심성의로 지원하였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돌격대에 달려나간 체육성 아래단위 로동자 리현숙, 내각사무국 아래 단위 로동자 신광성, 인민 경제대학 아래단위 연구사 김송희동무들은 힘찬 로력 투쟁을 벌리면서 성의있는 지원으로 돌격대원들의 사 기를 높여주었으며 중구역 량정사업소 로동자 차동 옥, 평성석탄공업대학 교 원 리재혁, 평양신문사 아

래단위 로동자 신송희동무

들도 지원사업에 적극 참

가하였다. 대외건설지도국 아래단 위 통역원 황영삼, 사회과 학원 종업원 리옥순, 평양 고려호텔 로동자 림성희, 농업출판사 안선영,국가 문헌국 번역원 김철, 체신 성 아래단위 조명철, 모란 지도국 아래단위 로동자 오영수, 단천지구광업총국 아래단위 부원 륙원룡동무 들도 조국의 만년재부를 마련하기 위한 힘찬 투쟁 을 벌리는 돌격대원들을

의 투쟁열의를 높여주었으 며 어느 한 단위에서 일하 는 전혁철,류철남동무들도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할 일념을 안고 지원사 업에 적극 참가하였다.

본사기자 리건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

《사회의 모든 성원 들이 서로 믿고 사랑 하고 도우면서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다같 이 삶의 보람과 행복

누리는것이 우리 사회의 참모습이다.》 산촌의 밤은 조용히 깊 어가고있었다. 이천군 산 지리에 살고있는 영예군 인 리<del>팡춘동무</del>의 집문이 열리며 돌격대제복을 가 뜬히 차려입은 처녀가 마

당에 나섰다. 따라나온 리광춘동무의 안해가 걱 정어린 어조로 물었다. 《매일 이렇게 밤길을 걷는 너를 보니 정말 미

안하구나.》

《미안하다니요. 밤하 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가느라면 마음이 즐거워 만지는걸요. 축산기지가 완공되는 날엔 오빠와 함께 드넓은 풀판을 한 바퀴 돌겠어요.》

그러고는 홀가분히 대문을 나 서 걸음을 재촉하였다. 어둠속 으로 사라져가는 처녀를 바라보 는 리광춘동무와 안해의 얼굴에 는 감동의 빛이 어려있었다.

영예군인부부가 고마와하는 처녀, 그는 고려의학과학원에서 옷에도 김은경동무의 뜨거운 진

간호원으로 일하다가 돌격대로 탄원한 김은경동무였다.

지난해 전승절날 아침이였 다. 리광춘동무의 집으로 낯모 를 처녀가 들어섰다.

의아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영예군인부부에게 처녀는 세포 지구 축산기지건설에 참가한 돌 격대원이라고 자기 소개를 하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전 얼마전에야 영예군인동 지가 이곳에 살고있다는것을 알았습니다. 마침 전승절을 맞 고보니 찾아와 축하해주고싶었 어요. >>

처녀는 가지고온 보약재들과 기념품을 내놓으며 앞으로 친동생 으로 여겨달라고 하는것이였다. 이렇게 김은경동무는 영예군 인의 가정과 인연을 맺었다.

그는 돌격대생활의 바쁜 속에 서도 영예군인의 집을 찾는 일 과 그를 위한 영양식료품을 마 련하는것을 잊지 않았다. 몸보 신에 좋은 토끼곰과 보약재, 산 꿀, 당과류…

영예군인이 입맛이 없어할 때 에는 민물고기와 사과를 구하기 위해 수십리 밤길을 다녀오기도 했다. 방목지에서 빨갛게 익은 산딸기를 보아도 그는 소중히 건사해놓았다가 영예군인에게 안겨주고서야 마음을 놓았다.

영예군인가정의 귀여운 딸애 의 돌생일옷에도, 영예군인의 생일상에도, 안해의 포근한 솜

정이 깃들어있다.

하루일을 마친 저녁이면 총총 히 걸음을 옮기는 그에게 중대원 들은 어디에 가는가고 묻군 하였 다. 그때마다 그는 기쁘게 대답하 였다. 오빠네 집에 간다고…

오랜 시일이 흘러서야 김은경 동무가 영예군인의 가정을 찾아 간다는것을 알았을 때 돌격대원 들은 감동을 금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따라섰다.

초급단체의 청년동맹원들이 그 의 뒤를 따랐고 대대의 지휘관들 과 유능한 의사들이 영예군인의 병치료에 정성을 기울이였다.

그는 지난 기간에도 사회와 집단을 위해 자신을 서슴없이 바쳐왔다. 고려의 학과학원에서 간호원으로 일할 때에도 《우리 간호원》이라는 정다운 부름속에 영예군인들과 전쟁로병들로부 터 사랑을 받아온 처녀였다. 창 전거리에 초고층건물들이 일뗘 설 때에도 그는 남먼저 야간지 원돌격대에 달려나가 청춘의 열 정을 깡그리 바치였다.

김은경동무가 세포지구 축산 기지건설장에 나가 영예군인 리 광춘동무와 혈연의 정을 맺은 나날은 1년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길지 않은 나날에 김은경동무가 걸어온 헌신의 길 에는 당의 뜻을 받들어 아름다운 청춘의 자욱을 뚜렷이 새겨가려 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고상한 정신세계가 깃들어있는것이다. 신 현 규

### 경공업과학분원창립 국 가 과 학 원 60돐기념

###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 원회의 주최로 국가과학원 경공 업과학분원창립 60돐기념 과학 기술성과발표회가 9일과 10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관계부문 일군들, 경공업부문 과학, 교육기관, 생산단위의 일 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교원, 연구사, 3대혁명소조원, 박사원

생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해외연고자가족들이 만경대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일가분들의 혁명 생애를 되새기며 사적물들을 주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그들은

를 방문하였다.

였다.

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은 다음 만경봉의 혁명사적들을 참관하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호 진일의 아들 채국장은 다음과

방직분과, 식료분과, 일용분 과, 기계 및 정보분과로 나뉘여 진행된 발표회에는 당의 과학중 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최근년간 경공업부문에서 이룩된 성과를 보여주는 330여건의 론문이 제 출되였다.

또한 60여건의 과학기술자료 들이 실물과 함께 도해, 다매체편 집물 등의 형식으로 전시되였다.

참가자들은 생산을 높은 수준 에서 정상화하고 원료, 자재의 국산화,설비들과 생산공정의 현대화, CNC화를 실현하며 새 제품을 개발하는데서 나서는 과 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한 성과

와 경험을 소개하였다. 데트론인견실생산공정과 데 트론인견천의 가공에 대한 연구 를 심화시킨 자료들,비누용조

합향료의 질제고와 새로운 소성 방법에 의한 도자기생산공정확 립에 대한 론문들이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또한 스피룰리나의 배양처리 와 그를 리용한 식료품생산방 법,옥쌀생산공정을 확립한 연 구성과 등 실천에서 나서는 과 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한 론문 들이 호평을 받았다.

페막식에서는 심사결과가 발 표된 다음 우수한 평가를 받은 참가자들에게 증서가 수여되고 시상이 있었다.

해

발표회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국경공업대회 와 올해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 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나

라의 경공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서 의의있는 계기로 되였다. 재중항일혁명투사 리재덕의 며느리 진건평은 위대한 수령님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에게

# 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 림픽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조직 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문을 보내였다.

통지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정부 성명에서 밝힌바와 기로 한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오스트랄리아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친선문화협회 전국서

기장인 레이몬드 퍼그손 공동

서기장을 단장으로 하는

김일성주석의 서거 20돐과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가쏘프 귀국하였다.

같이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 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하며 선수 들의 경기응원을 위해 남조선의 인천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 시아경기대회에 우리 선수단과 함께 큰 규모의 응원단을 보내

그러면서 우리 선수단의 경기

대회참가와 응원단의 파견에서 제기되는 제반 문제들을 협의하 기 위해 7월 15일경 판문점 우 리측 지역 또는 남측지역에서 해당 관계자들의 북남실무회담 을 가질것을 제의하였다.

일 본 국 회 의 원 대 표 단 도 착



이노끼 간지 참의원 의원을

출신 국회의원들인 중의원 의 원 마쯔나미 겐따, 이시제끼 다까시, 사까구찌 나오또, 참 의원 의원 시미즈 다까유끼, 야마다 다로, 그밖에 일본체육 평화교류협회 성원들로 구성 되여있다.

비행장에서 마철수서기장을 비롯한 조일우호친선협회 일군 들이 맞이하였다.

대 표 단 이 떠나갔다 김정일장군님의 서거 3돐에 즈 음한 오세안지역회고위원회대 나갔다.

오 세 안 지 역 회 고 위 원 회

몽골을 방분하였던 국가쏘프트 웨 어 산 업 총 국 대 표 단 기 국

평양역에서 김영환 국가쏘프 트웨어산업총국 부총국장과 롬 빈 하쉬-에르데네 주조 몽골 림 몽골을 방문하였던 강영준총 트웨어산업총국대표단이 10일 시대리대사가 마중하였다.

단장으로 하는 일본국회의원 대표단이 10일 평양에 도착하 였다. 대표단은 일본의 여러 정당

표단이 10일 렬차로 평양을 떠

국 방 분 단 이 떠나갔다 丕 【조선중앙통신】 김윤선 오사까조선고급 학교 교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 조 선 고 급 학 교

### 방문, 여러곳 사랑<mark>과 은</mark>정을 영원히 잊<del>을수</del> 없다**.** 그이께서는 만민의 영생하실것이다.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류

외 연 고 자 가 족 들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시여 어린시절을 보내신 만경대를 방문 하니 친어버이사랑을 안겨주시던 그이의 자애로운 모습이 가슴에 안 겨와 격정을 금할수 없다. 그이의 불멸의 생애는 숭고한 혁명적의 리의 력사라고 말할수 있다.

정녕 김일성주석은 가장 걸출한 수령, 희세의 위인이시다.

통사의 증손자 류보산은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김일성주석에 대한 그리움이 더 욱 강렬해진다. 그이는 우리 가정 이 참된 삶의 길을 걷도록 이끌어

주신 위대한 스승이시다.

재중항일혁명투쟁연고자 김순옥 의 아들 현종웅은 위대한 수령님에

할 의지를 표명하였다. 우리들은 주석께서 돌려주신

대한 그리움이 더욱 절절해지는 7월이라고 하면서 그이의 념원 을 현실로 꽃피워나가기 위한 조 국인민들의 투쟁에 적극 이바지

그들은 또한 대성산혁명렬사 등을 참관하였다. 릉을 참관하였다.

의 동지애, 전우애가 얼마나 뜨 거운가를 잘 알게 되였다, 숭고한 혁명적의리를 천품으로 지니신 그이의 사랑속에 많은 혁명렬사들이 값높은 영생의 삶 을 누리고있으며 그들의 위훈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나고있다고 격정을 토로하였다.

이밖에 해외연고자가족들은 미림승마구락부, 문수물놀이장





# 세 계 인 구 의 날에 즈음한 토론회

세계인구의 날에 즈음한 토 있었다. 발언자들은 청년들의 론회가 10일 대동강외교단회 관에서 진행되였다.

보건부문, 성, 중앙기관, 근 로단체일군들과 주조 유엔인구 기금,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이 토론 회에 참가하였다.

《청년들에게 투자하자》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는 발언들이

평원군 원화협동농장 제2

작업반 뜨락또르운전수 최일

관동무는 사회주의협동벌에 자

기의 순결한 량심을 바쳐 알굑

중학교를 졸업하고 영광의 땅

에 뿌리내린 때로부터 4 0년간

그는 뜨락또르와 함께 농산작업

의 기계화비중을 높여 더 많은

알<del>곡을</del> 생산하기 위하여 모<del>든</del>것

을 다 바쳐오고있다.

증산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믿 음 직

핟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의 전반적 인 재생산건강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사회발전에서 차지하는 청년

들의 지위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들은 청년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우리 나라와 유엔인구기금의 협력이 강화되리라는 기대를

그는 여러가지 공구와 예비부속

품들을 넉넉히 마련하여놓고 자검

자수를 깐지게 하여 뜨락또르의 가

동률을 높이면서도 많은 연유를 절

약하고있다. 논밭갈이시기와 모내

기, 가을걷이시기마다 그는 언제나

이른새벽부터 남먼저 뜨락또르발

동소리를 높이 울리며 하루계획을

그는 새 세대 뜨락또르운전수

학 생

들에게 뜨락또르의 구조,성능

어김없이 넘쳐 수행하고있다.

이날을 맞으며 인구연구소에 서는 《인구소식》 특간호를 발 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표명하였다.

농 촌 기 계 화 초 병

과 운전묘리는 물론 고장이 생

기면 제때에 수리하는 방법도

차근차근 배워주어 그들모두가

농촌기계화초병의 영예를 빛내

이어 우리 나라의 청년인구상

태와 전망, 청년들속에서 재생

산건강에 대한 인식상태,청소

년들을 위한 세계적인 투자활동

등에 대한 토론들이 있었다.

여가도록 이끌어주고있다. 하기에 농장원들은 누가 보건 말건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는 그를 가리켜 참된 농촌기계화초병이 라고 부르며 존경하고있다.

야기하는것이였습니다.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 방문단이 10일 비행기로 평 양을 떠나갔다.

【조선중앙통신】

로농통신원 한 우 일

# 독자의 정지

### 낳은 기적 뜨거운 정성이

지난 5월말 저의 딸이 뜻밖의 일로 의식을 잃게 되였습니다. 평양의학대학병원으로 달려갔 습니다.

소아집중치료실 실장 신영찬 선생님을 비롯한 의료일군들은 딸애의 상태를 살펴보면서 즉시 에 협의를 진행하고 치료대책을 세웠습니다. 저는 어린애마냥 복 도 한쪽구석에 쭈그리고앉아 울

기만 하였습니다. 그런 저의 손을 잡으며 실장선 생님은 물론 딸애의 병은 위급하 다, 어른들도 이런 상태에선 3일을 넘기기 힘들어한다, 그러 나 지금 병원의료집단은 최선을 다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정성이 지극하면 돌우에 도 꽃을 피울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였다, 그러니 의료일군들을 믿고 신심을 가지라고 절절히 이

이때부터 담당의사 문혜 정, 간호장 손윤금동무를 비 롯한 의료일군들은 딸애가 의 「식을 차릴 때까지 며칠밤을

지새웠습니다. 사실 어머니인 저자신도 이틀

저는 황급히 김일성종합대학 째만에는 너무 지쳐 잠간 졸고 말았댔습니다. 그러나 의사선생 님들은 나흘동안을 꼬바기 새우 며 딸애의 병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딸애에게 바치는 저의 사랑이 아무리 끝이 없다 해도 한 어린 이를 위해 쏟아붓는 의사들의 정성에는 비길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뜨거운 정성으로 딸애 는 한주일만에 의식을 차리였고 마침내 기적은 창조되였습니다.

다시금 저의 품에 안겨 밝게 웃 는 딸애의 귀여운 모습을 보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 미래 사랑을 받들어가는 우리 시대 의료 일군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에 대 해 깊이 느끼게 되였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회주

의보건제도를 빛내이는 길에서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는 참된 의료일군들을 널리 소개해줄것 을 부탁합니다.

> 만경대구역 갈림길1동 유설경

#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장마철피해막이사업에 큰 힘을 넣자 조국애,향토애를 지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큰불피해를 막기 위한 사 업은 국토를 보호하고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입 LICH. »

함경남도 일군들과 근로자들 이 큰물피해를 미리막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장마철피

해를 막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 을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 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도당위원회에서는 각급 당조

직들과 인민정권기관, 근로단체 조직 책임일군들의 협의회를 열 고 큰물피해를 막는데서 나서는 실무적인 문제들을 토의하고 해 당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였다. 도와 시, 군들에 큰물피해방 지련합지휘부가 조직되여 사업

에 착수하였다. 도국토환경보호관리국과 시. 군국토환경보호관리부에서는 지난해 장마철기간에 피해를 입 었던 지역과 대상들에 대한 조 사를 다시 면밀히 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우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일군들은 장마철피 해를 막기 위한 전투가 벌어지 는 들끓는 현장들에 나가 기술 적지도를 심화시키면서 자재와 륜전기재보장대책을 빈틈없이 세웠다.

도와 시, 군의 일군들과 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관철에 힘차게 떨쳐 나선 함경남도와 강원도안의 일 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뜨 거운 조국애, 향토애를 지니고 장마철큰물피해를 미리막기 위 한 사업에서 성과를 확대해나가 고있다.

에 자들은 불타는 조국애, 향토애 를 지니고 강하천과 도로, 산림 부문에서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전투에 한결같이 떨쳐나 실적을 올리고있다.

도에서는 우선 무더기비가 내 려도 강물이 쭉쭉 빠질수 있게 강바닥을 파내고 물길을 곧게 퍼머 제방뚝을 견고하게 보강하 고있다.

도국토환경보호판리국과 신 흥군, 영광군의 일군들과 근로 자들은 성천강과 그 지류에 대 한 정리사업에 힘을 넣었다. 도 국토환경보호관리국 일군들과 련관단위 근로자들은 지난 6월 말까지 3천여m³에 달하는 콩크 리트치기를 하여 함흥물놀이장 주변 성천강계단식호안공사를 끝냄으로써 주변풍치를 일신하 고 큰물피해를 미리막을수 있게

하였다. 신흥군과 영광군에서는 일군 들과 근로자들이 떨쳐나 강바닥 파기와 물길바로잡기, 제방보강 공사를 질적으로 하여 성천강상 류와 그 지류들에서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신포시에서도 2만m³의 강바 닥파기와 8천여m²의 장석공사 를 비롯한 양화천정리를 질적으 로 하였다. 정평군과 함주군. 금 야군을 비롯한 여러 군들에서는 금진강과 금야강, 중소하천들의 바닥파기와 제방보강공사에 힘 을 넣었다.

결과 한달 남짓한 기간에 도적으로 6.4 km의 강하천구간 에서 1만 2천여m³의 막돌투석 이 진행되고 5 0개소에 물뚝이 쌓아졌다. 그리고 중소하천 50 개소의 100여km구간에서 130만㎡의 강바닥파기와 2천여㎡의 장석공사를 기본적 으로 끝내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도에서는 또한 도로와 산림부

고있다. 시, 군들에서는 중요도로들에 있는 암거, 수통들에 대한 보수

문에서 큰물피해를 미리막기 위

한 대책을 앞질러가며 세워나가

강원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장마철기간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게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도의 일군 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장마 철생산대책을 철저히 세우기 위 한 사업에 모두가 떨쳐나서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진행 하고있다.

도에서는 큰물피해방지대책 을 위한 지휘부를 조직하고 모 든 단위들에서 장마철생산대책 을 빈틈없이 세워나가도록 해나 가고있다. 특히 모든 단위들에

작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산 대책을 세우게 하고있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옹벽공사 들도 질적으로 하였다.

금야군에서는 지난 6월 중순 부터 중요도로의 5개소에 대한 사태막이공사와 130km의 도로옆도랑정리를 하였으며 북 청군에서는 여러 령길 600m 구간에서 1 200m²의 옹벽공 사를 하였다. 덕성군과 신흥군, 수동구에서는 골막이와 홈막이 공사를 견고하게 하였다.

결과 도적으로는 중요도로의 2.4 km구간에 대한 9천여m² 의 옹벽이 보수되고 500여개 의 암거, 수통들이 보수정비되 였으며 500여km의 도로옆도 랑들이 정리되였다.이밖에 2 350m의 사태막이공사와 3.2km의 구간에서 사방야계 공사들이 성과적으로 끝났다. 특파기자 박동석

서 비바람과 큰물에 의한 피해 를 입지 않도록 면밀한 대책을 세워나가고있다.

원산시와 고산군, 안변군을 비롯한 시, 군들에서는 큰물에 의한 산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 을 세우는것과 함께 일군들과 근로자들, 주민들을 발동하여 공공건물들과 살림집들의 지붕 보수에 힘을 넣도록 하고있다.

시, 군들에서 강하천의 물이 쭉쭉 빠질수 있게 강바닥파기와 제방보수정비를 잘해나가고있 다. 그리고 도로와 다리들이 큰 물에 파괴되지 않도록 필요한

ュ

물

口

한

<u>노</u> 0

작

물

0

철

원산청년발전소를 비롯한 수

력발전소들에서는 많은 물을 잡 아 전력생산을 늘이는것과 함께 발전설비와 수력구조물들이 큰물 과 벼락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 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있다. 도송배전부와 시, 군송배전소 들에서는 철탑과 송변전설비들 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

을 면밀히 짜고들고있다. 도체신관리국에서는 도안의 각 체신소들과 체신분소들에서 통신망들에 대한 감시에 힘을 넣고 벼락막이대책을 철저히 세 워 장마철에도 통신의 믿음성을 담보할수 있게 하고있다.

천내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는 장마철에 갱들이 침수되지 않도록 막장들에 뽐프와 배관들 을 집중적으로 설치하고있으며 원산철도분국에서는 철길로반 과 철다리를 비롯한 시설물들이 큰물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있다.

도의 농업부문들에서는 농작 물이 장마철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있다.

창도군과 이천군, 판교군을 비롯한 농촌들에서는 농경지들 이 큰물피해를 받지 않도록 배 수로들을 말끔히 정리하고 양수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기 위 한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다.

이와 함께 장마철논물관리를 짜고들고 강냉이가 비바람에 넘 어지지 않게 철저한 대책을 세 우고있다.

때 그들이 힘을 넣은것은 혁

신적안목을 가지고 작전단계

에서부터 설계를 과학적으로

처음 호안공사설계가 나왔

을 때였다. 설계도면을 펼쳐

든 군당책임일군은 생각이

깊었다. 공사대상들은 지난

하는 사업이였다.

# 장마철대책을 예견성있게 세우자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높이 세운 올해전투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해서는 무더기비와 큰물에 의한 피해를 미리막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새로운 조선속도를 창조하기 위해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는 전국각지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한결같이 떨쳐나 장마철대책을 예견성있게 철저 히 세욲으로써 7.8월에도 생산과 건설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장마철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잘 세워 0: 합니다. »

장마철대책을 세우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것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이 사업에 대한 관점 과 립장을 바로가지는것이다. 장마철에 큰비가 올수도 있고 오지 않을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요행수를 바라며 장마철대책을 소홀히 하거나 자 그마한 빈틈이라도 낸다면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가져올수 있다. 일군들은 장마철피해를 막기 위 한 투쟁의 성과여부가 전적으로 자신들의 역할에 달려있다는것을 명심하고 피해막이사업을 미리 미리 작전하고 강하게 내밀어야 한다. 당면생산 에만 몰두하면서 장마철대책을 예견성있게 세우 는 사업을 소홀히 하는 현상을 철저히 극복하여 야 한다. 특히 농업과 건설부문, 탄광, 광산, 철도 운수를 비롯하여 장마철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 는 부문과 단위의 일군들이 구체적인 실정에 맞 게 피해막이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장마철에도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 상화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서야 한다.

서부지구의 대규모탄광들을 비롯한 모든 탄광 들에서는 막장들에 뽐프와 배판들을 집중적으로 설치하여 제때에 물을 뽑아낼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채탄장주변에 저수움들을 만들고 물 도랑정리를 착실히 하는 한편 예비채탄장을 더 많이 마련하여 어떤 조건에서도 생산을 안전하게 내밀수 있게 하여야 한다. 로천광산들에서 채굴 계단과 막장관리를 짜고들어 사태와 침수를 미리 막아야 한다.

화력발전소들에서 저탄장과 운탄계통을 시급 히 보수정비하고 도랑들을 깊이 파주며 수력발전 소들에서는 언제를 비롯한 수력구조물관리를 짜 고들면서 장마철기간 물잡이에 큰 힘을 넣어 높 은 수위, 높은 효률운전을 보장함으로써 전력생 산을 늘여야 한다. 송배전단위들에서 철탑과 전 주, 여러가지 변전설비들과 송전선들이 무뎌기비 와 벼락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철저히 세우는데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

철도운수부문에서 철길로반과 철다리를 비롯 한 시설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하여야 한다. 구배가 심한 철길구간과 산사태가 날수 있는 개 소들에 대한 보강대책을 미리부터 착실히 세우며 임의의 정황에 따르는 동원준비를 철저히 갖추어 야 한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하여 주요 대상건설장들에서 건설용자재들과 설비들이 무더기비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며 이미 시공해놓은 건설물의 안전대책을 빈틈없이 세워 야 한다.

각지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건물과 창고들에 비가 새지 않도록 지붕 및 벽체보수를 깐지게 하며 각종 설비와 원료, 자재의 보관에서 사소한 부족점 도 나타나지 않도록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야 한다.

각 도, 시, 군들에서 강하천정리를 비롯한 물판 리사업을 강화하고 도로판리를 잘하여야 한다. 무더기비가 쏟아져도 강물이 쭉쭉 빠질수 있게 강바닥을 충분히 파내고 우불구불한 물길은 곧게 퍼며 제방뚝을 견고하게 쌓고 보강하여야 한다. 언제와 갑문, 각종 수로들을 정비보강하고 잘 관 리하며 필요한 곳들에 계단을 만들고 옹벽을 쌓 을데는 옹벽을 쌓아 흙과 모래가 강에 흘러들지 않게 하여야 한다. 도로를 정상적으로 보수정비 하는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우고 포장을 다시 할 것은 다시 하고 시설물들을 보수할것은 시급히 보수하면서 도로보수정비사업을 집중적으로 하

# 어떤 큰물에도 끄떡없게

### 탄 광 들 에 서 석 탄 공 업 부 분 의

석탄공업성에서 각지 탄광들 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장마철피 해를 막고 석탄생산을 정상화하 기 위한 구체적인 작전을 세우 고 주요대상들에 력량을 집중하 여 성과를 거두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선행부분과 기 초공업부분을 추켜세우기 위 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 석 탄, 전력, 금속, 철도운수부분 을 확고히 앞세우고 경제강국 건설의 도약대를 튼튼히 다져 야 합니다. 특히 석탄, 금속공 업부분에서 혁신을 일으켜 나 라의 전반적경제를 활성화하 도록 하여야 합니다.》

성에서는 탄광들에서 계절적 영향을 받음이 없이 석탄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예 견성있게 해나가고있다.

지난 시기의 경험에 비추어 장마철피해를 입을수 있는 대상 들과 개소들을 빠짐없이 장악 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다.

성참모부의 작전에 따라 개천 지구의 봉천탄광, 순천지구의 령대탄광 배수로보수공사가 집 중적으로 벌어졌으며 각지 탄광 들에서 갱내저수움공사, 저탄장 보수공사를 비롯한 공사들이 마감단계에서 적극 추진되고

성에서는 각지 탄광들에서 장 마철피해를 막기 위한 보수공사 들이 활발하게 벌어지는데 맞게 여기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보장 대책을 따라세우고 예비채탄장을 넉넉히 마련하여 장마철에도 석 탄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도록 하 고있다.

각지 탄광련합기업소들에서 장마철석탄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준비를 그 어느때보다도

날씨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

소한 장마철피해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게 미리미리 작전하고

열생산직장에서는 설비운영

을 철저히 표준조작법의 요구대

로 해나가면서 무더기비가 오는

조건에서도 보이라들의 만부하

를 보장할수 있도록 필요한 안

특히 생산건물의 지붕에 쌓인

탄재들을 말끔히 제거하고 한방

울의 비물도 스며들지 않게 보

전대책을 착실히 세우고있다.

수를 질적으로 해나가고있다.

강하게 내밀고있다.

# 빈틈없이 갖추고있다.

특히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 소아래 탄광들에서 장마철에도 석탄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준 비사업을 착실히 잘하여 성과를 거두고있다.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련합기 업소의 일군들이 한개 대상씩 맡고 탄광들에 내려가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면서 대 중의 열의를 발동하여 그날 내 세웠던 목표는 그날로 수행하도 록 하고있다.

성의 주요목표로 선정된 봉천 탄광 개방배수로보수공사가 성 과적으로 끝났다.

천수백m구간에서의 배수로보 수공사가 성과적으로 수행됨으 로써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중요 탄생산을 계절적영향에 구애됨 이 없이 정상화할수 있게 되였 다.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성과 련합기업소일군들의 적극 적인 지도방조밑에 장마가 시작 되기 전으로 공사를 끝내기 위하 여 한사람같이 떨쳐일어나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였다.

조양탄광, 개천탄광, 자강도공 급탄광을 비롯한 련합기업소의 탄광들에서는 몇년전 갱들과 구 내를 휩쓸었던 큰물피해의 원인 을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분석하 고 면밀한 대책을 세우고있다.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령대탄광의 배수로공사도 마감 단계에서 적극 추진되고있다.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는 덕천탄광, 형봉탄광을 비롯 하여 지난 시기 장마철이면 피

해를 많이 받았던 대상들에서의 침수원인을 빠짐없이 찾아낸데 기초하여 통이 크게 일판을 벌 려나가고있다. 이밖에도 안주지구, 강동지

구, 천내지구와 북부지구의 탄 광들에서도 장마철에 있을수 있 는 피해를 미리막기 위하 사업 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 득장탄광기계공장을 비롯한

석탄공업부문의 탄광기계공장 들에서 설비부속품생산과 소공 구생산에 박차를 가하여 탄광들 에서 장마철석탄생산준비를 갖 추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본사기자 강명천



장마철피해를 막고 석탄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직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화풍탄광에서- 본사기자 찍음

### 도 보장할수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을 호안공사로 정하였다. 이 야 하였다. 수천m의 3

선 천

선천군 고부협동농장 일 군들과 농장원들이 수만m³ 의 토량을 처리하고 수천m 의 물길을 정리하여 큰물 피해를 막을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다.

령 도 자 위 대 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잘된 곡식이 큰불피해 를 받지 않도록 미리 대책 을 철저히 세워야 하겠습 LICH. »

농장에서는 당조직의 지도 밑에 장마철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 었다. 일군들은 우선 지대적 특성으로 장마철이면 큰물피 해를 받을수 있는 포전들을 장악한데 기초하여 물길정리 에 력량을 집중하였다. 물길정리계획을 면밀하게

세운 농장일군들은 앞장에 서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 들이밀었다. 물길바닥파기에 펼쳐나선

그들은 해당 부문 일군들과의 련계밑에 굴착기의 리용률을 높이는데 힘을 넣었다. 굴착기의 가동률이자 공

사성과라는것을 깊이 명심 한 운전공들은 낮과 밤이 따 로 없다싶이 긴장한 전투를 벌리였다. 굴착기의 가동률 이 높아지는것만큼 물길정

고 힘든 일에 남먼저 어깨를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일자리 를 푹푹 내였다. 용기백배하 여 분발해나선 그들은 질통 이 넘쳐나게 흙을 가득 담아 지고 달리고 또 달리였다. 시 간이 흐를수록 물길바닥파기 성과가 계속 확대되였다.

물길제방공사를 맡은 일군 들과 농장원들도 기세를 올 리였다. 그들은 한m의 물길 제방을 쌓아도 견고성과 문 화성이 보장되도록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나갔 다. 그리하여 농장에서는 짧 은 기간에 수천m의 물길정 리를 성과적으로 해내여 많 은 면적의 농경지를 큰물로 부터 보호할수 있게 하였다.

김 강 철

어졌다.

형성하여 랭습해와 가물, 큰 물피해를 다같이 막는데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그 방법이란 별로 신비 한것이 아니다.

경 김 정 은 동 지 께 서 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

였다.

농장에는 큰 늪이 있 다. 여기서 땅속물이 계속 솟구치고 비물까지 고여 수위가 높기때문에 주변 의 적지 않은 포전들이 랭

습지로 변하여 소출을 제 대로 낼수 없었다. 농사를 안전하게 짓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일군들은 늪의 물을 뽑아 내기 위한 1천여m의 물

당조직의 지도밑에 관 리위원장을 비롯한 일군 들은 물길건설전투에로 농장원들을 힘있게 불러

들었다. 면서 물길건설을 한다는것은

결코 헐한 일이 아니였다. 하지만 농장원들은 나라 쌀독을 책임진 주인된 자각

뚫고 발파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하지만 책임일군들은 현장

에 나가 살다싶이하면서 갱 속에 들어가 전투지휘를 해 나갔다. 그리하여 발파를 성과적으

로 함으로써 5 000여m³의 돌을 해결하면서도 강폭을 수십m나 더 넓히게 되였다.

이번 공사를 진행하면서 일군들이 잘한 작전은 또 한 가지 로력조직을 합리적으로 짜고든것이다.

일군들은 이 공사를 100명도 안되는 돌격대의 력량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륜전기재들을 보장해주었다. 건설경험이 있는 돌격대원 들로 공사를 진행하니 공사 의 질이 철저히 보장되였고

자재랑비가 없어졌다. 결과 방대한 호안공사는

군자체의 힘으로 비류강을

# 본사기자 정성일

단천시 오몽협동농장 일군 을 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 들과 농장원들이 새 물길을 섰다. 작업반, 분조, 농장원

《영농방법에서 혁신 을 일으켜야 하겠습 LICH. »

면 결정적으로 늪의 수위 를 낮추어야 한다.

길을 새로 건설할 대담한 목표를 세웠다.

일으켰다.

이와 함께 양수설비들 을 마련하여 만가동시키 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

당면한 영농공정을 수행하

별사회주의경쟁이 힘있게 벌

이 많으면 무서울것도,점 사 명 못할 요새도 없다는 신 념을 안고 불꽃튀는 전투 를 벌리며 헌신의 구슬땀 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기** 에 이미 있던 수천m의 포전물길을 깊숙이 파내며 말끔히 정리하였다. 결과 늪의 수위는 물론

였다. 더욱 좋은것은 늪의 수 위를 낮추어 1정보이상의

심을수 있게 된것이였다. 농장에서는 가물과 큰물 피해를 막는데도 이 물길

천하였다. ┗ 물을 일정하게 채워 포전 ■ 들에 모기기 기계

하였다. 비가 올 때에는 늪에서 물길로 빨리 퇴수시키여 농작물생육에 좋은 조건을

그리하여 농작물을 실하 게 자래워 앞그루면적에서

많은 감자를 생산하였다. 물길을 형성하여 3가지 리득을 보게 되는 이 농장의 올해농사가 락판적이다.

# 빈틈없이 작전하고 실속있게

양 화 력 발 전 소 에 서 뿐만아니라 수리정비에 필요 령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한 각종 공구들을 충분히 갖추 같이 지적하시였다. 어놓고 예방보수대책을 철저히 《장마철대책도 미리 잘 세우면서 변화되는 날씨조건에 세워야 합니다.》 맞게 보이라들에 대한 급수 및 동평양화력발전소에서 현행 공기조절을 합리적으로 하여 연

전력생산을 다그치는것과 함께 소효률을 더욱 높여나가기 위한 장마철생산대책을 예견성있게 투쟁을 꾸준히 진행하고있다. 세워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타빈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당조직의 적극적인 지도와 방 들은 자체의 힘으로 생산건물을 조밑에 기사장 최순덕동무를 비 보수하는것과 함께 해당 단위와 롯한 이곳 일군들은 변덕스러운 의 긴밀한 런계밑에 대동강의

> 업에 응당한 힘을 넣고있다. 이에 뒤질세라 전기직장의 기 술자.기능공들이 까벨들에 대 한 순회점검을 강화하며 선로구 간에서 자그마한 빈틈도 있을세 라 조임작업을 깐지게 하고 절 연보강을 책임적으로 해나가고

수위변화에 따르는 공업용수보

장을 책임적으로 하기 위한 사

있다. 운탄직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무더기비와 벼락에 의한 피해를 미리막기 위한 사업

에 주인답게 참가하고있다. 이들은 언제든지 가동할수 있 도록 배수뽐프들을 손색없이 정 비해놓고 예비부속품들을 충분 히 마련하며 시운전을 정기적으 로 하여 사소한 이상요소도 나 타나지 않게 즉시에 대책하면서 비물을 쭉쭉 뽑아내기 위한 만 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다. 시설직장의 로동자들은 발전

소의 배수체계를 전반적으로 정 비하면서 정황에 따르는 물빼기 대책을 실속있게 세우고있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 을 높이 발휘하여 1호보이라대 보수를 성과적으로 끝내는 자랑 을 펼친 보수부문의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도 장마철대책 을 예견성있게 세우면서 충천한 기세로 맡은 과제들을 불이 번 쩍 나게 해제끼고있다.

어떤 조건에서도 발전설비들 의 만부하를 보장할수 있게 만 단의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면서 전력생산을 다그치고있는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성과는 계속 확 대되고있다.

본사기자 정순성

### 찾아쥐고 비류강을 과학적담보를 돌격대의 힘으로 갱도를 성 천 군 일 군 들 의 사 업 에 서

굳게 결심한 그는 이 지구

근 1 000m 구간의 땅

그러나 그들은 물러서지

않고 과학연구기관들을 찾아

다니며 그 방도를 모색해나

그 과정에 합리적인 콩크

리트치기방법을 알게 되였

다. 이 방법은 기초를 판 다

음 철근을 박고 콩크리트를

치는 방법으로서 암반이 없

어도 제방을 든든히 보호할

막상 곳사를 시작하자고부

니 자재보장이 문제였다.

여러개의 뚝을 쌓는데만도

24 O t의 세멘트가 있어야

자재문제를 놓고 걱정하는

일군들을 둘러보며 군당책임

일군은 과학적으로 계산된

함형부재를 만들고 그안에

돌을 넣으면 세멘트도 절약

하고 수력구조물의 자체중량

했는데 군에는 그 절반밖에

을 파보았으나 암반은 나타

의 암반상태를 확인하기 위

해 국토부문 일군들과 함께

현지로 나갔다.

나지 않았다.

갔다.

수 있었다.

없었던것이다.

안을 내놓았다.

성천군에서 장마철을 앞두 고 비류강호안공사를 질적으 로 하여 큰물피해를 막을수

있는 담보를 마련해놓았다. 이 공사는 근 2만㎡의 성토공사와 1만 3천㎡의 장석공사, 수천m³의 콩크리 트치기를 진행해야 하는 과 제로서 군자체로 하기 어려

운 공사였다. 하지만 방대한 공사를 제 힘으로 해제낀 군의 성과를 놓고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 치 못하고있다. 그 비결은 어 디에 있는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강하천정리사업에 힘 을 넣어 큰불피해를 막고 강하천주변을 보기 좋게

비류강하류에 위치하고있 는 이 군은 수십개의 하천들 과 높은 산들로 둘러막혀 있다. 이런 자연지리적조건 으로부터 장마철에 비가 많 이 내리면 강물이 넘쳐나 농경지가 물에 잠기거나 패 여나가고 돌모래가 일부 논

과 밭을 뒤덮군 하였다. 군책임일군들은 이런 지대 적특성으로부터 국토관리를 군의 경제문화발전에서 중요 한 문제로 내세우고 그 대상

기간 큰물피해가 가장 큰 지 대였다. 특히 월하지구의 비 류강기슭은 물흐름방향이 꺾 이다보니 물살이 세고 물량 이 많아 장마철에는 물이 제 방을 넘거나 터치군 하였다. 하지만 그 설계에는 이 구 간에 암반이 없다는데로부터

제방기초콩크리트치기가 반 영되지 않았던것이다. 책임 인군은 해다 보무은 통하여 수십년간 종합분석된 이 구 간의 초당 최대물흐름량을 따져보았다. 8 760m³에 달한다는 놀라운 수자가 나왔다.

이런 조건에서 기초콩크리 수 있었다.

트치기를 하지 못한다면 세 찬 물살에 의해 제방이 터질 물흐름량이 최대인 경우에도

큰물피해를 영원히 막자면 제방이 끄떡하지 않도록 기 초콩크리트치기를 무조건 해

고 부 협 동

어나갔다. 일감이 방대하였다. 하지만

리성과가 올랐다. 온 농장이 물길정리를 위한

투쟁으로 세차게 끓어번지였

다. 선전선동수단들이 물길정 리공사장에 집중되였다. 농장 원들속에 어울린 일군들은 한해농사에서 큰물피해를 막 는것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 을 깊이 해설선전하면서 어렵

큰불로부터 농작불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염주군 내중협동농장에서-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 으로 짜고들어야 더 큰 성과 를 거둘수 있다.

《이 공사는 군의 오늘만

이 아니라 래일을 위한 자연

개조사업인것만큼 우리 대에

반드시 해놓아야 합니다. 영

원히 큰물피해란 말을 모르

고 사는 고장이 되게 하겠다

는 각오를 가지고 떨쳐나선

다면 얼마든지 해제낄수 있

일군들은 새로운 결심을

안고 공사를 과학적으로 진

행하는데서 제기될수 있는

그 과정에 제방뒤면에 물

도랑을 내고 그 주변에 타

래붓꽃을 심자는 안들도 제

군의 모든 책임일군들이

웨일 힘든 자재문제해결을

작전은 현실속에서 구체적

강줄기가 굽이진 구간에 정

하였다. 이렇게 해야 이 구간

의 강폭도 넓혀 물살이 뗘지

게 할수 있다는 과학적타산

을 앞세웠기때문이였다.

스스로 맡아나섰다.

문제들을 더 찾아나갔다.

습니다.》

기되였다.

하였다.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제방에 입힐 돌을 확보할 손색없이 진행되였다. 때였다. 책임일군들은 산을 발파하여 돌을 보장하기로 길들인 놀라운 현실은 한개 이때 그들은 발파지점을

군을 책임진 일군들이 오늘 만이 아니라 래일을 내다보 며 성공의 과학적담보를 찾

아쥐고 큰물피해막이공사를 내밀어야 성과를 거둘수 있 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단천시 오봉협동농장에서

농장원들은 우리에게 쌀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새 물길을 건설하는 동시

땅속물층도 낮아지게 되

새 땅을 찾아 알곡작물을

을 리용할 방도를 찾아 실 작업반들에서는 날씨 가 더울 때에는 물길에

마련해주었다.

만도 지난해보다 훨씬 더

본사기자 김성철

# 단합의 길을 열어나가자 대결시대를 끌장내고 화해와

# 국면을 열기 위한 확고한 의지 자주통일의 새

보도된바와 같이 지난 7일 우리 공화 국은 민족앞에 가로놓인 난국을 타개하 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자주통일의 새 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려는 애국애 족의 일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정부성명을

성명에는 북과 남이 무모한 적대와 대 결상태를 끝장내고 화해와 단합의 길을 열어나가며 외세의존을 반대하고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나가는 문 제, 온 겨레가 지지하고 민족의 공동번 영을 담보하는 합리적인 통일방안을 지 향해나가는 문제, 관계개선에 유리한 분 위기를 조성해나가는 문제 등 우리의 원 칙적립장과 선의를 반영한 현실성있는 제안들이 담겨져있다. 그 며칠전에도 우 리 공화국은 국방위원회특별제안을 통하 여 북남사이에 쌓여있는 크고작은 문제 들을 자주의 원칙에서 풀어나갈것과 북 남관계를 전쟁접경에로 치닫게 하는 모 든 군사적적대행위를 전면증지하고 평화 적분위기를 조성하며 화해와 협력, 민족 번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실 제적인 조치들을 취할것을 남조선당국에 제의하였다. 국방위원회특별제안에 이어 정부성명이 발표된것은 악화된 북남판계 를 정상화하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완화 하며 민족적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의 새 로운 전환의 시대를 열어나가려는 우리 공화국의 진정과 아량, 애국애족적의지 에 대한 뚜렷한 과시로 된다.

파국에 처한 북남판계를 개선하고 우 리 민족끼리의 립장에서 자주통일과 평 화번영을 이룩하자면 우리가 국방위원회 특별제안에 이어 정부성명을 통해 제의 한 문제들이 반드시 해결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우리 민족지

상의 과업입니다. »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앞 길을 열어나가려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확고부동한 립장이며 의지이다.

북남관계개선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 의 근본전제이다. 북남관계개선을 뗘나 민족적화해와 단합, 협력에 대해 생각할 수 없고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도 바랄수 없으며 조국통일과 관련한 그 어 면 문제도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성과적으로 해결해나갈수 없다. 조선반 도에서 전쟁위험을 막고 자주통일을 실 현해나갈수 있는 최선의 방도는 불신과 대결의 북남판계를 화해와 단합, 협력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키는것이다.

우리 공화국은 지난 기간 민족분렬의 비극을 가시고 북남사이의 화해와 협력 을 실현할것을 주장해왔으며 그 실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였다. 북남 관계가 우여곡절을 겪을 때에는 사사로 운 감정보다 민족의 대의를 앞에 놓고 정세가 첨예한 속에서도 관계개선을 위 한 여러가지 합리적인 제안들을 내놓았 다.조국통일 3 대원칙과 력사적인 6. 1 5 공동선언, 1 0. 4 선언은 자주 와 단합의 기치높이 민족자체의 힘으로 북남관계를 발전시키며 자주통일, 평화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공화국의 일관한 로선과 정책의 반영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 과 관련한 력사적문건에 생애의 마지막 친필을 남기신 20돐이 되는 올해에 조 국통일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펼칠 확 고한 의지를 안고 정초부터 여러 계기를 통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고 북남판계개선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려는 아량있고 대범 한 립장을 천명하였다. 이번에 우리가 또 다시 남조선당국에 특별제안을 보내고 정부성명까지 발표한것은 북남관계개선 을 위한 우리의 진정과 성의가 얼마나 열렬한가 하는것을 내외에 뚜렷이 보여 주고있다. 당면하여 우리가 인천에서 진 행되는 제 1 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선수 단과 함께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한것은 얼어붙은 북남관계를 민족적화해와 단합

의지를 내외에 뜨겁게 과시하게 될것이 다. 북남대결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조 국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개척해나가려는 우리 공화국의 립장과 의지는 날로 굳세 여지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특별제안과 정부성명은 파국에 처한 북 남관계를 개선하고 대결상태를 끝장내며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 현하려는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 한것으로 하여 내외의 커다란 지지와 공 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북과 남은 민족의 운명을 위해 새로운 관점, 새로운 립장에서 관계개선의 길을 함께 열어나가야 한다.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 둘로 갈라진 지도 근 70년이 되였다. 나라의 분렬로 인적, 물적자원이 헛되이 소모되고 민족 의 통일적발전이 지연되고있다. 날로 심 화되고있는 북남관계의 파국은 전쟁의 재난을 빚어낼 위험까지 몰아오고있다. 민족의 참화를 불러올수 있는 비극적사 태를 더이상 지속시킬수 없다.

북과 남사이에 반목질시하고 대결할것 이 아니라 화해하고 단합하여 통일에로 나아가는 길만이 우리 민족이 살길이다. 우리 민족은 둘로 갈라지면 망하고 하나 로 합쳐져야 번영하며 존엄있게 살수 있다. 북과 남은 한피줄을 이은 동족으 로서 불신하고 대결하여야 할 아무런 리 유도 없다. 더우기 렬강들의 첨예한 갈 등과 패권경쟁이 조선반도를 둘러싸고 격화되고있는 오늘 북과 남이 백해무익 한 대결을 지속한다면 통일은 고사하고 민족의 운명이 외세에 롱락당하게 될것 이다. 민족이 당하는 치욕과 불행을 외 면하고 개별적집단의 협애한 리해관계와 동족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감에 사로잡 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것은 민족의 통 일념원을 우롱하고 후대들앞에 두고두고

저주받을 죄를 짓는것이다. 북과 남은 민족의 존엄과 명예를 걸고 겨레의 운명과 미래를 책임적으로 개척

해나가야 한다. 나라의 흥망성쇠, 민족의 생사존망은 전적으로 북남당국에 달려있 다. 북과 남은 불미스러운 과거와 단호 히 결별하려는 의지를 안고 새로운 미래 를 향하여 큰걸음을 내짚어야 한다.

북남관계개선은 어느 일방의 리익을 위한것이 아니라 민족모두의 리익을 위 한것이며 민족의 통일적발전과 공동번영 을 위한것이다. 조국통일이라는 민족공 동의 큰 리익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주 의주장과 리해관계에만 매여달린다면 불 신과 대결의 곬만 깊어질뿐 화합과 단결 은 언제 가도 이룩될수 없다.

우리의 진정과 성의가 어려있는 특별 제안과 정부성명은 북남관계의 비정상적 인 현 사태를 바로잡고 민족의 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 고있다. 우리가 천명한 문제들이 실현된 다면 악화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 적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는데서 전환적계 기가 마련되게 될것이다.

남조선당국은 편견과 불필요한 의심 을 털어버리고 우리의 진정이 담긴 특별 제안과 정부성명에 적극 호응해나서야 한다. 외세가 씌워준 색안경으로 동족을 바라보아도 안되며 사대와 굴종으로 굳 어진 머리로 북남관계를 대해서도 안 된다. 남조선당국은 시대착오적인 적대 관념을 버리고 동족대결정책을 련북화해 정책으로 바꿀 용단을 내려야 한다. 동 족이 내민 화해의 손을 맞잡고 대범하고 통이 큰 실천적조치들을 취해나갈 때 신 뢰도 생기게 되고 북남관계도 전진하게 되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북남 관계와 자주통일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 나갈데 대한 우리 공화국의 특별제안과 정부성명은 어느 일방의 제의가 아니라 민족의 요구, 시대의 요구이다.

남조선당국은 겨레의 지향과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옳바른 선택을 하여 야 할것이다.

###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 였다.

《우리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조국 통일성업에 쌓아올리 T 신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0 빛 내 여 나 가 며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민족최대 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0 실현하여야 합니다.》

우리 공화국은 민족 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 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 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 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 하여 이 땅우에 하루빨 리 부강하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는 것을 최대의 사명으로 내세우고 적극 투쟁해 나가고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한생을 바쳐 마련해주 신 조국통일 3대헌장과 그 구현인 북남공동선 언들과 우리민족끼리리 념은 자주적운명개척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변함없이 틀어쥐고나 가야 할 불멸의 기치 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받들어 겨레의 요구와 지향에

맞게 북남관계를 개선 하고 자주통일과 민족 번영의 새시대를 열어 나가려는 우리 공화국 의 립장과 의지는 시종일관하며

올해에도 우리 공화국은 내 외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도전 으로 말미암아 임촉즉발의 정 세가 조성된 속에서도 최대한 의 인내력을 발휘하면서 조선 반도의 긴장완화와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길을 주동적으로 열어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 과 관련한 력사적문건에 생애의 마지막친필을 남기신 20돐이 되는 올해에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뚜렷이 밝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 는 온 민족과 세계를 끌없이 격동시켰다. 력사적인 신년사 를 커다란 흥분과 격정속에 받 아안은 해내외의 온 겨레는 절세위인의 애국의 호소에 화 답하여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투쟁에 너도나도 궐기해나섰 다.세계의 진보적인민들도 신년사에 밝혀진대로만 하면 조선반도의 평화통일은 문제없 다는 기대와 확신을 표시하면 서 우리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 력에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을

보내였다. 우리 공화국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들고 통 일운동에 조성된 난국을 타개 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들을 내놓고 북남관계개선에 유리 한 환경을 주동적으로 마련해 나갔다.

지난 1월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우리 민족 끼리 단합된 힘으로 북남관계개 선의 활로를 열어나갈것을 호소 하는 중대제안을 발표하고 북남 쌍방이 모든 비방중상행위를 중 지하고 군사적긴장을 해소하는 데서 필수적이며 실질적인 제안 아침은 찬연히 밝아올것이다. 들을 내놓았다. 그에 이어 남조

선당국과 여러 정당, 사회단체, 각계각층 인민들에게 보내는 공 개서한을 발표하고 일방적인 조 치까지 취하면서 북남관계개선 을 위한 분위기를 적극 마련하

[6]

였다. 우리 공화국의 이런 꾸준한 노력에 의하여 북남당국사이의 접촉이 실현되고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감격적인 상봉도 이루 어지는 등 일련의 성과들도 마

련되였다. 북남관계개선을 달가와하지 않는 내외반통일세력의 악랄 한 도전과 방해책동으로 어느 하루도 긴장이 가셔지지 않는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우리 공화국은 선군의 보검을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평화통일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조금도 늦추지 않았다.

얼마전 우리 공화국 국방위 원회의 특별제안에 이어 발표 된 공화국정부성명은 바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 통일유훈을 심장깊이 간직한 우리 군대와 인민들, 북남관계의 개선과 이 땅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오늘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통일사상과 로서을 하치의 드림도 없이 끝까지 관철할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는 천백배로 굳세여 지고있으며 자주통일과 평화번 영을 바라는 온 겨레의 불타는 통일열기는 나날이 높아가고있 다. 민족의 드높은 통일애국의 지향과 열의를 하나로 합쳐나갈 때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바라 시던 부강번영하는 통일의 새

본사기자 박철준

# l장 담화 발표 나조선당국은 마감한 정책적결단을 내려야 한다 📉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담화

의 열기로 녹이고 전체 조선민족의 통일

### 남승우 총련 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이 7일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지지하 여 담화를 발표 하였다.

일

담화는 오늘 들과 재일동포 01 들은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 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 국 통 일 과 지 막 친 필 남 기 신 20돐을 맞으며

어버이수령님에

┗━━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수령님께서 통일 성업에 쌓아올리 신 불멸의 업적 을 가슴뜨겁게 되새기고있다고 0 지적하였다. 이 력사적인

날에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성명을 발표하여 현시기 민족앞에 가로놓인 난국을 타개 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자주

통일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원칙적립장과 성의있는 조치들을 천명하였다 고 밝혔다.

외의 온 겨레에게 북남관계개선 과 조국통일에 대한 새로운 희 망과 확신을 안겨주고있으며 재 일동포들속에서 통일애국의 전체 총련일군 뜨거운 열정을 불러일으키고있 다고 하면서 전체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의 불같은 통일열망과 애 국의지를 한데 모아 이를 전폭 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인 민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은 조국통일이라고 하시면서 매 시기 가장 한리전이며 혀식전이 조국통일방침과 방안을 내놓으 시고 그 실현을 위해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로고와 심혈을 깡그리 바치시였다고 칭송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통일유훈을 기어이 관철하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간주하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 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 방안을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립하시였으며 통일리정표인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마련하시여 자주통일의 새시대 를 펼쳐주시였다고 격찬하였다.

빛내이시려는 철석같은 의지와 ₹ 공화국정부성명은 북과 남. 해

성명에 호응하여 불미스러운 과 거와 단호히 결별하고 통일의 내짚어야 할것이라고 주장하 🕻

재일동포들은 경애하는 🕻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조 🖁 이라는 필승의 신념을 안고 🕏 경애하는 원수님을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고 그이의 령도따라 제2의 6. 15시대를 열

드림없는 신념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새해신년사에서 북과 남, 해외 ₹ 태양이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의 온 겨레가 참다운 애국의 다함없는 경모심으로 가슴 불기치,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 대우는 7월이다. 생애의 마지에 굳게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무시각까지도 조국통일문제로

담겨져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전체 총련일군들과 🕻 국통일위업은 반드시 이룩될것 🕻

위한 거족적투쟁에 힘차게 떨쳐 🕻 나섬으로써 올해에 자주통일과 🕻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나갈 축 더욱 못 견디게 그리워진다. 것을 열렬히 호소하시였다고 밝 축시기 민족앞에 가로놓인 이번 성명에는 민족앞에 가로 ₹

남조선당국이 공화국정부의 새로우 미래를 향하여 큰걸음을

떨쳐나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온 겨레가 민족의 위대한

그토록 마음쓰신 위대한 현시기 민족앞에 가로놓인 난

국을 타개하고 북남관계를 개선 하며 자주통일의 새로운 전환적 놓인 난국을 타개하고 북남관계 ₹ 국면을 열어나갈것을 천명한 를 개선하며 자주통일의 새로운  $\frac{1}{2}$  우리 공화국 정부성명은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려는 공  $\frac{1}{2}$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 화국정부의 애국애족의 일념이  $\frac{1}{2}$  과 유훈을 받들어 통일애국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우리 겨레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어주고있다.

성명에서 지적된바와 같이 지 금이야말로 북과 남이 민족의 존 엄과 명예를 걸고 겨레의 운명과 미래를 책임적으로 개척해나가 야 할 중대한 시기이다. 시대착 오적인 관점에 사로잡혀 동족을 덮어놓고 적대시하며 대결만을 추구한다면 종당에는 전쟁밖에 차례질것이 없다. 피해를 입을것 은 오직 우리 민족뿐이다.

우리 겨레가 반세기이상이나 갈라져 살아온것만도 가슴터지 는 일인데 서로 총부리를 맞대 어나가는 거족적투쟁에 힘차게 🕻 고 대결하면서 전쟁의 재난까 지 들쓴다면 그보다 더 큰 불행 【조선중앙통신】️ 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민족의 지향에 따라서야 한다 다시한번 민족앞에, 시대앞에 자신들을 세우고 돌이켜보아야 한다. 사대로 망국을 강요당했 던 우리 민족의 과거사와 외세 가 우리 민족에게 가져다준 민

족분렬의 고통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겨레는 이제 더이상 조선민족의 분렬을 통해 어부 지리를 얻으려는 외세의 희생 라서야 한다. 물이 되여서는 안된다.

북과 남이 대담하게 손을 잡

조선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 화번영을 실현하자는 우리 공 와 찬란한 문화로 하여 오래전 화국의 정부성명이야말로 진정 이다.

아닐수가 없다. 대결의 악순환 으로 세기를 이어온 북남관계는 오늘 더이상 수수방관할수 없는 험악한 지경에 이르렀다.이것 을 외면하며 계속 동족대결을 추구하는것은 용납 못할 대역죄 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민족적 량심을 가지고있다면 우리 공화 국정부성명을 심중히 대해야

북과 남,해외의 온 겨레가 힘과 지혜를 합쳐 외세를 배격 하고 민족의 자주적통일과 평

고 평화통일과 민족번영의 길을 개척해나가야 한다. 6. 15통일시대는 우리 민족 이 뜻을 모으고 힘을 합치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것

이 없다는것을 실증해주었다. 남조선당국은 외세의존사상

모란봉구역인민위원회

# 대결을 추구하는것은 용납 못할 대역죄

부터 동방의 문명국으로 자랑뗠 쳐왔다. 그런데 외세에 의하여 반세기가 넘도록 분렬의 고통속 에 우리 민족의 발전이 저애당 하고있는것은 정말 통탄할 일이

한다.

과 불순한 체제통일흉심을 버 리고 민족적단합과 통일을 바 라는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따

부위원장 한 명 호

시기적절하면서도 나라와 민족 을 위하는 애국애족적인 선언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가 진 나라와 민족들도 서로 협력 하고 공존하는 오늘의 세계에 서 한피줄을 이은 북과 남이 서 로 대결하는것은 참을수 없는 우리 민족의 수치이다.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

소속의 차이를 뛰여넘어 조국 통일을 위해 서로 힘을 합치자 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시종일 관한 주장이다. 조국통일은 이 제 더는 우리 민족의 소원으로 만 남아있을수 없다. 북과 남이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서 힘 을 합쳐 북남관계를 발전시키 면서 민족분렬의 력사를 단호 계는 결코 개선될수 없다. 히 끝장내야 한다. 이것은 시대 의 엄숙한 요구이다.

남조선당국이 우리 공화국의 거듭되는 성의와 노력을 외면하 며 대결정책을 고집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겨냥한 북침전 쟁연습을 계속 벌린다면 북남관

공화국의 특별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통신》이 1일 론평을 통해 공화 국의 특별제안을 받아들일것을

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의 특별제안을 사실상 거부함 으로써 평화를 갈망하는 해내 외동포들에게 실망을 주었다고 비난하였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남조선당국이 북과 관계개선을 할 의지가 없다는것을 말해주

고있다고 주장하였다. 남조선당국은 사실상 남북관 계에서 자주의 원칙을 전혀 지 켜오지 않았고 자주의 립장을 지킬수 있는 조건도 전혀 마련 되여있지 않다고 하면서 론평

지금 온 겨레는 남조선당국이 시대착오적인 동족대결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의 북남관계 개선노력에 런북화해정책으로 화답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사회과학원 사회정치학연구소

재미동포언론이 주장

재미동포인터네트신문 《민족 그것도 핵무기로 침략하기 위한 }

남조선당국에 요구하였다. 로평은 남조선당국이 조선민

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남조선은 미군에 군사주권을 넘겨준채 돌려받기를 거부하는 미국의 식민지이다. 미국과 합 동하여 북을 침략하기 위한 훈련

연구사 김경진

각종 대규모전쟁연습을 련이어 벌리면서도 평화를 말할수 있는 가. 조선이 어떤 과정을 거쳐 핵 🕽 보유국이 되였는지 이에 대한 기 Ұ 본적인 지식만이라도 가지고있 다면 남조선당국의 관료들은 얼 굴을 들지 못할 처지인데 북을

낯두꺼운짓이다. 또한 남조선《정부》는 북을 민족대단결의 대상으로 보지

향해 《진정성》을 운운하는것은

않고 《적》으로 규정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남북간 모든 합의를 존중하였 다. 》느니, 《남북관계를 실질적 으로 전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 다. 》느니 하고 말하는것은 얼 마나 뻔뻔한가.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7. 4공동성명을 존중 한다면 공화국 국방위원회 특별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것이다.

오늘은 세계인구의 날이다. 1987년 7월 11일세계에 서 50억번째 아이가 태여났다. 유엔인구기금 집행리사회 제 36차회의에서는 7월 11일을 세계인구의 날로 정하고 해마다 이날을 기념하기로 하였다.

현시기 인구문제는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있는 중요한 문제 들중의 하나이다. 자료에 의하 면 1987년 7월 11일 5 0억명이였던 세계인구는 2012년 10월에 70억명 을 넘어섰으며 2050년경에 는 90억명이상에 이를것으로 보고있다.

유엔인구기금은 매해 세계인 구의 날을 맞으며 인구문제해결 을 위한 주제를 제기하고 세계 의 모든 나라들이 인구문제해결 을 위한 사회적인식을 높이는데 중심을 두고 여러가지 활동들을

흑해의 전수역을 포괄하여 벌

어지는 이 훈련에는 약 20척의

함선과 20여대의 비행기 및 직

승기, 해상륙전대와 해안포들이

해상과 공중목표들에 대한 수

상함선들의 미싸일 및 포사격으

로 시작된 훈련에서는 초음속반

함미싸일 《모스끼뜨》와 순항미

싸일 《말라히뜨》가 발사되였

이 4일 시작되였다.

동원되였다.

벌릴것을 요구하고있다.

오늘 인구문제해결에서 새로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 미래를 대표하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준 비시키는가 하는것이 중요한 문 제로 제기되고있다. 청소년들은 세계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통

역할과 능력이 무시되고있으며 그들에 대한 교육과 의료봉사,

직업조건보장에서 많은 난문제 들이 제기되고있다. 현실은 모든 나라들이 청년문 제해결에 시급한 관심을 돌려

나라들의 빈궁감소전략과 사회

### 투자하자》 《 청 년 들 에 게

어느 사회에서나 청소년들은 사회발전의 중심적인 위치에 놓 여있으며 이들에게 높은 교육과 의료봉사, 직업조건을 보장해주 는것은 가정과 사회의 발전뿐아 니라 나라의 장래운명을 결정하 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 한다.

그러나 많은 나라들에서는 자 라나는 새 세대들, 청소년들의

로씨야흑해함대 훈련 시작 로씨야흑해함대의 군사훈련 다. 또한 흑해함대 공군기지의 《Cy-24》비행기들이 목표들 에 대한 사격과 폭탄투하를 성 과적으로 진행하였다.

> 이번 훈련은 함선집단과 해안 구분대 및 항공대와의 협동작전 을 기본목적으로 하고있다. 흑해함대의 훈련은 국제해양

법규범의 요구에 준하여 진행되 고있다고 로씨야국방성 공보국 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경제발전을 적극 추동해나갈것 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이 로부터 유엔인구기금은 올해 세 계인구의 날 주제를 《청년들에 게 투자하자》로 제기하고 매개 나라들이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더욱 높여 모든 청년들 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건 강한 몸으로 사회에 진출하여 자기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

을 호소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세계인구의 날을 맞으며 여러가지 활동들이 진행된다. 우리 나라는 유엔인 구기금과의 협조에 응당한 주목

을 돌리고있다. 세계인구의 날을 맞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해당 기관들과 여러 국제기구대표들의 참가하에 《청 년들에게 투자하자》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비롯한 각종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고있다.

우리 나라 인구연구소에서는 유엔인구기금과의 협조밑에 인 구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인 구소식》특간호를 발간하고있다. 우리 나라는 앞으로도 인구문 제해결과 유엔천년기개발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것이다. 본사기자



### 0

지난날 아프리카라고 하면 사 람들은 선듯 락후와 빈궁,기이 와 질병에 대해 먼저 생각하였 다. 《열대의 대륙》, 《태양이 불 타는 곳》이라는 뜻으로 불리울 만큼 이 대륙의 자연환경은 너 무도 황량했다. 더구나 온갖 외 부세력의 침략과 간섭,착취와 략탈속에 대륙은 긴긴세월 무지 와 몽매를 숙명으로 감수하며

오늘날 아프리카는 자기의 모습 을 변모시키고있다. 지난 6월 26일부터 27일 사이에 적도기네의 말라보에서 제23차 아프리카동맹 국가 및

번영을 통해 대륙의 면모를 일

살지 않으면 안되였다.하지만

신시키려는 아프리카인민들의 념원과 의지가 반영된것으로 하 여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었다. 《아프리카에서의 농업 및 식 량안전》을 기본의제로 하고 대 륙의 평화와 안전,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실천적문 제들이 토의결정된 이번 수뇌자 회의에는 아프리카동맹 성원국 국가 및 정부수반들, 고위급대

회의에서는 농업에 힘을 넣으

정부수뇌자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는 단합과 협조, 평화와

표단들, 아프리카동맹 산하기구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표들, 농업관련 국제기구대표 들과 다른 대륙에서 온 명예손 님들이 참가하였다.

# 흥과 면서 대륙의 전반적사회경제발 전을 적극 추동하기 위한 건설

적인 토의들이 진행되였다. 아프리카동맹위원회 위원장 은 포괄적이며 지속적인 장성 을 통해 대륙의 번영을 이룩하 기 위한 농업현대화를 다그쳐 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농촌녀성지원, 기계화,

획을 세워야 한다고 언급하 였다. 아프리카동맹 지방경제 및 농 업담당위원은 개별농가들의 생 산성을 제고하여 농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것이 아프리카나

라들에서 가난을 극복하고 경제

를 활성화시키는 동력으로 될것

첨단기술도입 등 구체적인 계

이라고 강조하였다. 회의에서 연설한 적도기네대 통령을 비롯한 많은 나라 수반 들은 아프리카경제는 발전된 나 라들이 조종하고있는 상태에 있 다고 하면서 지역나라들이 교묘 한 신식민주의정책의 영향을 받 고있다는데 대해 잘 알고 발전 된 나라들에 대한 의존심을 버 리며 동등하고 호상성에 기초한 남남협조에 선차적힘을 돌려야

참가자들은 아프리카경제발 전의 기둥인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빈궁청산과 하부구조 현대화, 식량보장 등을 위해 농 전, Oŀ 업부문에 많은 자금을 할당하기 로 합의하였다.

이번 수뇌자회의에서는 농업 문제뿐아니라 대륙의 안전보장 문제가 론의되였다.이 문제는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종족 및 종교적모순으로 인한 군사적충 돌이 계속되고있으며 여러 극단 적인 무장단체들이 무고한 사람 들을 살해, 랍치하는 등 테로행 위가 만연하고있는 엄연한 현실 로부터 매우 중요한 요구로 나 선다,대륙의 안전보장을 위하 여 모든 분파주의, 배타주의를 근절하고 인민들의 안전과 재산 을 보호하는것이 대륙의 보다 큰 발전을 위한 기초로 된다는

해였다. 모리따니대통령을 비롯한 많 은 참가자들은 지금 대륙나라들 이 테로와 국경횡단범죄 등으로 시련을 겪고있다고 하면서 이러 한 불안정상태를 하루빨리 해소 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것이 회의참가자들의 공통된 견

회의참가자들은 아프리카나 라들의 안전 및 정보기관들이 공동으로 모든 형태의 테로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견해 일치를 보았다.

회의기간 평화유지사명과 긴 급위기상황에 즉시 대응하기 위 한 동아프리카대기무력창설에 관한 의정서가 채택되였다.

# 하여

우간다의 무쎄베니대통령은 이와 관련하여 《동아프리카대기 무력의 창설은 아프리카의 불안 정을 극복하는 서막으로 될것이

【조선중앙통신】

다. 》라고 강조하였다. 회의에서는 또한 온갖 형태의 분쟁과 테로를 방지하고 대륙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아프리카대기군을 창설할데 관 한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토의되 였다. 앞으로 5개 지역 려단으 로 구성된 아프리카대기군이 창 설될것이며 이미 4개 려단이 준비되였다고 한다. 아프리카대 기군의 기본임무는 감시 및 평 화유지활동을 벌리는것이며 1 5일내에 대륙의 임의의 지역 에 신속반응무력을 파견하여 위 기 및 대량살륙을 방지하는것이

라고 한다. 이외에도 회의에서는 에이즈 방지, 기후변화 등 많은 현안문

제들이 론의되였다. 이번 회의를 통하여 아프리카 동맹은 자체의 단합된 힘으로 대륙의 번영과 발전을 이룩하고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려는 아프 리카인민들의 지향과 의지를 국

제사회에 당당히 과시하였다. 아프리카는 앞으로 자기의 잠 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더욱 새로와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리철 혁

편 집 위 원 회